

Independence Movement Day

The March 1st Movement, also known as Sam-il (3-1) Movement (Hangul: 삼일 운동; Hanja: 三一運動) was one of the earliest public displays of Korean resistance during the rule of Korea by Japan from 1910 into 1919. The name refers to an event that occurred on March 1, 1919, hence the movement's name, literally meaning "Three-One Movement" or "March First Movement" in Korean. It is also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Man-se Demonstrations (Hangul: 만세 운동; Hanja: 萬歲運動; RR: Manse Undong). (Wikipedia)



Tightening | Brightening
| Anti-aging | Guerison

피부 관리 | 목주름 관리 | 두피 관리 |
부종 및 혈액순환 완화

나만의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보세요!

Helen Seo
(913) 291-7172

Inside the Issue 이달의 지역기사

2019년도 캔사스시티한인회
정기총회
PG. 6-7

김준배 수석코치 중서부 PGA
'올해의 코치상' 수상
PG. 8

3월 1일 백주년을 기념하며
PG. 9

한방으로 암 치료가 가능한
가요?
PG. 22

뼈과 근육 이야기 : 디스크
PG. 23

건강한 식습관이 대장암 예방
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
PG. 24

KANSAS CITY
KOREAN JOURNAL

MAR 2019
VOL #53 \$3.95

Breaking news online
kckoreanjournal.com

Find us on
Facebook

/ kckoreanjournal



Dr. Kyunghwan An
Adjustments 교정 \$29
Acupuncture 침 \$29
Adjustments \$39
& Acupuncture
척추교정 & 침

Grandview Chiropractic & Acupuncture Clinic
12121 Suite O Blue Ridge Blvd., Grandview, MO 64030
Phone number: 816-217-0020

청정한약
빠른회복

816-444-1218

교통사고, 각종질환 양.한방전문협진 | 한의사 김일형



INSURANCE AGENT
보험 전문인

이 리사 (Lisa Lee Moran)

913-217-5169

Lisa@AutoHomeKC.Com

자동차, 주택, 사업, 생명, 메디케어 플랜

AUTO. HOME. BUSINESS. LIFE

MEDICARE HEALTH PLAN

7180 W 107TH ST., #10, OVERLAND PARK, KS 66212

Lisa

platinum realty BizPRO The Academy Group, LLC

김준수 세무 회계 부동산

세무 회계 부동산 종합 관리 시스템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와 재산을 관리할 한층 업그레이드 해 드립니다.

JUNSU KIM, CPA, EA, MSA, REALTOR
10322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66212
T.913-383-8558 / F.913-815-8810 / INFO@BIZPROKC.COM



|교|통|사|고|
당하셨습니다?
당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으세요
사고의 불편과 고통을 최소화시켜 드립니다.

신태전 척추신경 통증
한방재활병원
예약전화: 913-649-2044



로한 척추신경 & 침술클리닉



아름다운 중심을 잡습니다

교통사고

운동상해

디스크 질환

어깨질환

임산부 교정

메디컬 마사지

디지털 X-ray



상담해드립니다.

- ✓ 학생 보험 및 각종 보험
- ✓ 무보험자 할인 혜택
- ✓ 교통사고와 직장에서의 사고는 환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LohanChiro

교통사고 대처요령

- 1 사고 후 통증 발생 시, 911전화
- 2 상대방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카드 (이름, Policy#, 자동차 Year, Make, Model) 운전 면허증, 자동차 번호판의 정보를 확보
- 3 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으로 사고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알 수 있게 현장 촬영 (전체 환경을 다 포함한 사진- 신호체계, 몇 차선 도로, 스타프 사인 여부, 차량 번호판)
- 4 상대방이 전적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주시면 정확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교통사고 시 차량 제공



Lohan Clinic
South KC Office
816-444-1218 ext.1



Lohan Clinic
South KC Office
816-444-1218 ext.1



Lohan TEM
한방 클리닉
816-444-1218 ext.4



Lohan Clinic
Skin & Massage
816-444-1218 ext.3



자매병원
Grandview Clinic
816-217-0020

404 E. Bannister Rd. Suite C Kansas City, MO 64131



로한 스킨 클리닉

f #LohanSkin

동안 관리

여드름 관리

얼굴 경락

미백 관리

리프팅 | 탄력

노화 방지

얼굴 경락은 막힌 피부를 풀어 괴사된 세포 및 유해한 독소 등이 림프에 의해 체외로 배출되면서 피부에 산소포화도가 높아져 혈기가 좋아지게 합니다.



Jet Clear는 강력한 압력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피부와 두피에 물 입자를 분사해 피부 부위를 세정하거나 영양 물질 화장수를 도포하여 모공청소, 각질제거, 미백, 여드름, 그리고 턱선과 눈가에 주름개선 및 탄력에 효과적이며 얼굴에 축적되어있는 유해한 독소를 제거해주는 최신장비입니다.



www.lohanskin.com

✓ **바디** 전신마사지 서비스도 있습니다.

양/한방 협력 진료 Free Clinic

NEW PATIENT ONLY

3월14일 두번째, 목요일 !!

척추 교정, 침, 한약

만성 통증, 각종 질환, 무료 진료 !!

816-444-1218

척추신경의 홍성민

한의학사 김일형

신학기 Special !! 학생 무료 건강 상담 !!

KC CALENDAR OF EVENTS

March 1: 3.1 절 100주년 기념행사: Starts at 01:30 pm, Emmanuel Baptist Church, 10100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March 1: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Day

March 1: GARDEN BROS CIRCUS: March 1-March 3, Hale Arena at the American Royal Center, 1701 American Royal Ct, KCMO

March 1: BOOKS IN THE BOTTOMS: March 1-March 3, 9am-5pm, West Bottoms Business District Association, 1321 W 13th St #8, KCMO

March 2: SPORTING KC BLOCK PARTY: Town Center Plaza/Crossing, 5000 W 119th St., Leawood, KS

March 6: THE KANSAS CITY AUTO SHOW 2019: March 6-March 10, Kansas City Convention & Entertainment Facilities, 301 W 13th St., KCMO

March 6: ACC Career Fair: 01:00 PM - 03:00 PM, Polsinelli, 900 W 48th Pl, KCMO

March 9: WEDDING BELLS AND COCKTAILS EXPO: March 9-March 10, From: 09:00 AM to 06:00 PM, Adam's Mark Hotel & Conference Center

March 9: YOUNG ARTIST COMPETITION FINALS: Starting: 11:00 AM, Kauffma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1601 Broadway Blvd., KCMO

March 9: ST. PATRICK'S DAY PARADE: Starting: 01:00 PM, Shawnee, KS, Johnson Drive at Monrovia, Shawnee, KS

March 13: BIG 12 MEN'S BASKETBALL CHAMPION-

SHIP: March 13-March 16, From: 06:00 PM to 09:30 PM, Sprint Center, 1407 Grand Blvd., KCMO

March 15: 2019 US COFFEE CHAMPIONSHIPS: March 15-March 17, Kansas City Convention & Entertainment Facilities, 301 W 13th St., KCMO

March 17: ST. PATRICK'S DAY PARADE: Starting: 11:00 AM, Begins at Linwood & Broadway and proceeds south along Broadway to 43rd Street.

March 17: Saint Patrick's Day

March 20: NAIA DI MEN'S BASKETBALL NATIONAL CHAMPIONSHIP: March 20-March 26, From: 09:00 AM to 12:00 PM, Downtown, 301 West 13th Street, KCMO

March 23: GREATER KANSAS CITY HOME SHOW: Friday, March 23, Noon-9:00 p.m.; Saturday, March 24, 10:00 a.m.-7:00 p.m.; and Sunday, March 25, 10:00 a.m.-5:00 p.m., Kansas City Convention & Entertainment Facilities, 301 W 13th St., KCMO

March 23: KANSAS CITY BRIDAL & WEDDING EXPO: March 23-March 24, Kansas City Convention & Entertainment Facilities, 301 W 13th St., KCMO

March 29: PLANET COMICON 2019: March 29-March 31, Kansas City Convention & Entertainment Facilities, 301 W 13th St., KCMO

March 29: 2019 NCAA MEN'S BASKETBALL MID-WEST REGIONAL: March 29-March 31, Starting: 08:00 PM, Sprint Center, 1407 Grand Blvd., KCMO

◆ 목차 / READER'S GUIDE

◆ 커뮤니티 / COMMUNITY	PG 6-9	◆ 스포츠 / SPORTS	PG 20-21
◆ 캔사스 소식 / LOCAL NEWS	PG NA	◆ 웰니스 / WELLNESS	PG 22-25
◆ 세계 뉴스 / WORLD NEWS	PG 10-13	◆ 문화와 생활 / LIFESTYLE	PG 26-27
◆ 사업 / BUSINESS	PG 14-15	◆ 믿음 / FAITH	PG 28-29
◆ 디렉토리 / DIRECTORY	PG 16-17	◆ 무료 광고 / CLASSIFIEDS	PG 30-31
◆ 경제 / ECONOMY	PG 18-19		

◆ 일반 및 광고 연락처 / GENERAL AND ADVERTISING CONTACT

Email: kim@kckoreanjournal.com Phone: 913-802-2005
ONE.FIVE Media LLC : Kansas City Korean Journal

(여러분의 광고를 소중히 여깁니다. 캔사스의 유일한 한인신문 KCKJ로 연락주세요. 한인특별가로 모십니다!)


편집자 주 / EDITOR'S NOTE

- 모든 칼럼의 영어 또는 한국어 번역본은 요약본이며, 외부필자의 원고는 신문사 편집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ll translations of the columns are done in summary form. The opinions, beliefs, and viewpoints expressed by the contributing writers may not reflect the opinions, beliefs, and viewpoints of KCKJ.
 - Korean Translator and Editor: Chaeyoung Kang
-
- 캔사스시티 코리안 저널의 (연합 뉴스)로 표기된 모든 기사의 발신지와 저작권자는 연합뉴스이며, 무단전재나 재배포를 절대 금합니다.
 1. 연합 뉴스 - (기사발신지=연합뉴스)
 2. 저작권문구 <저작권자 (C) 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The source and copyright holder of all articles marked as Associated Press (AP) in Kansas City Korean Journal is AP News(AP), reprinting or distributing without permission is strongly prohibited.
 1. AP - (Article Source Reuters)
 2. The copyright notice <copyright (C) AP All Rights Reserved - Copyright by>
 - 마감일을 넘겨오는 기사나 광고는 부득이하게 다음호로 늦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저희 신문의 수정 사항을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적을 귀하게 받아 더욱 발전하는신문이 되고자 합니다. 보내실곳은 kim@kckoreanjournal.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If you find any information in error, please direct them to kim@kckoreanjournal.com Thank you.

은퇴연금 세미나

3월 2일(토) 오전 11시

장소 캔사스시티 한인회관

주최  캔사스시티 한인회
캔사스시티 상록회

경험많은 셰프가
일식 전통과 튜진이 어우러진
코스 요리를 서브 합니다
예약 913.258.5879
단체예약 받습니다


Sushi & Grill

주방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Lunch
Mon-Fri 11:30-2:30pm
Sat & Sun 12-3pm
Dinner
Mon-Thur 4:30-9pm,
Fri 4:30-10pm
Sat 3-10pm
Sun 3-9pm
Happy Hour
Mon-Fri 4:30-6pm
Sat & Sun: 3-5pm

Prairie Fire 5621 W. 135th St. Suite 2620
Overland Park, KS 66223
www.marusushikansas.com 913.258.5879

우리 이사 갑니다!!

Soo Hair

Great Cut



- 디지털펌

- 셋팅펌

- 헤어컷

- 염색

- 예쁜머리

- 건강한 머리

시간:

월: 예약제
화-금: 10시 아침 - 7시 밤
토: 9시 아침 - 6시 밤
일: 1시 오후 - 6시 밤

전화번호: (913) 341 - 5265

장소:

10312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66212



2019년도 캔사스시티한인회 정기총회

지난 2월 10일 캔사스시티 한인회관에서 총 47명의 정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캔사스시티한인회 정기총회가 거행되었다.



이주현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정기총회는 순서에 맞추어 정기총회 개최선언, 국민의례, 애국가 및 성조가 제창이 있었다. 이은철 목회자 협의회 회장이 대표기도를 해주었다. 안경호 한인회장의 정기총회 환영 인사와, 김성배 이사장의 격려사를 끝으로 1부의 행사를 마무리하고 이어지는 2부에서는 김준수 수석부회장이 성원 보고를 해주었다.

2018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 보고는 한국 출타로 참석을 하지 못한 이영일 감사를 대신하여 조영애 감사가 제출된 인쇄물의 내용과 감사한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감사 보고를 발표해 주었다.

날짜	내역
2018년 8월 26일	캔사스시티한인회 임시총회
2018년 10월 25일	시카고총영사관 병역세미나
2018년 10월 26일	순회영사
2018년 11월 11일	기금조성 일일식당
2018년 12월 16일	송년행사
2019년 1월 5일	신년 하례회
2019년 2월 10일	캔사스시티한인회 정기총회

2019년도 캔사스시티한인회의 사업계획안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안경호 회장은 이번 100주년 3.1절 행사 및 캔사스시티한인회 100주년 행사를 통하여 과거에 묻혀있는 캔사스시티 한인 이민사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발자취를 알려주고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며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주류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행사를 계획하였다고 하였다.

2019년 사업계획안

- 2월 23일 : 한국학교 사생대회
- 3월 1일: 3.1절 100주년 행사
장소: Emmanuel Baptist Church

- (3.1절 100주년 학술세미나, 3.1절 100주년 기념행사, 3.1절 100주년 기념공연: 안산시립합창단 기념공연)
- 3월 2일: 사회보장연금 혜택 세미나 - 캔사스시티한인회와 상록회 공동 주최 (연령층에 상관없이 세미나 참석 요청)
- 4월 5일: 순회영사업무
- 4월 27일: 2019 Diplomatic Ball
- 5월 중: 동해병기 추진위원회 출범
- 6월 25일: 6.25 참전용사 초청 오찬
-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
-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Ethnic Festival
- 9월중: 한국학교와 상록회를 위한 추석맞이 잔치
- 10월 25일: 이동 영사업무
-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캔사스시티한인회 창립 100주년 행사
- 12월 15일: 송년잔치
- 2020년 1월 4일: 신년 하례회
- 2020년 2월 9일: 캔사스시티 한인회 정기총회

2019년도 캔사스시티한인회 예산으로는 기금 조성행사 및 내년도 송년회 예산 금액을 포함하여 최종 \$181,000으로 예산을 생각한다고 발표하였다.

안경호 캔사스시티한인회장은 캔사스시티한인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정회원들의 여러 질문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하였다.

캔사스시티한인회 주관 체육대회가 없는 것이 아쉽다는 질문에 안경호 회장은 캔사스시티 체육행사는 캔사스 체육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캔사스시티한인회도 후원단체로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밝혔다.

State of Kansas 와 State of Missouri와 같이 협력하여 한국인의 날 행사를 주 차원에 할 수 있도록 격상시켰으면 한다는 질문에는 이미 캔사스주와 미주리주에 캔사스시티한인회가 법인을 등록하여 캔사스주 및 미주리주와 원활한 관계를 통하여 캔사스시티한인회의 행사에 함께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예년에 비하여 2019년 예산이 월등히 많은 것은 사실이나 최선을 다하여 동포사회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인회 회칙 개정위원회 임원 선출도 하였다. 김수환, 조영애, 김준수 3명의 임원 외에 캔사스시티한인회 정기총회에서 장영준, 모인환 2명이 추가로 선출되어 총 5명이 한인회 회칙 개정위원회 임원이 되었다.

기타 안전에서 나온 질문으로는 이주찬 고문의 캔사스시 한인인구는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한인 입양아를 포함하여 7000명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문화회관 관련 질문에는 현재 문화회관 회장의 자리가 공석이라는 안내와 더불어 임원진 관련 질문은 추후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였다.

끝으로 3.1절 100주년 행사에 많은 캔사스시티 한인동포들이 참석해

주시길 요청한다는 안내와 더불어 돌아오는 3월 2일 사회보장 세미나에도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내를 끝으로 2019년도 캔사스시한인회의 정기총회는 마무리가 되었다.

캔사스시한인회: www.kckorean.net
 캔사스시한인회 facebook 웹사이트: www.facebook.com/kasofgkc

참석자 명단 (정회원 기준): 캔사스시한인회 정회원: 가족당 회비 \$20 (미혼은 \$10)을 납입한 캔사스시 한인

안경호, 김준수, 이주현, 조영애, 김봉석, 노현이, 은영영, 독고영식, 박인숙, 김호원, 김종자, 이주찬, 원영희, 정영로, 김성배, 윤정재, 안향미, 황인숙, 정재호, 정원화, 김정민, 박귀우, 박선희, 배규태, 배화자, 김현영, 허장, 최성용, 유갑무, 왕희철, 장영준, 박순현, 모인환, 문경환, 김병철, 김대중, 박성창, 유명재, 최현철, 유혜란, 서지원, 김금규, 오승현, 김성일, 문현자, 김진홍, 김광웅

(기사/사진: 캔사스시한인회 보도위원 안향미)

초청장

- 3월 1일: 3.1절 100주년 행사
 장소: Emmanuel Baptist Church (10100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66212)
 - 3.1절 100주년 학술세미나 (1시30분 시작)
 - 3.1절 100주년 기념행사 (4시 시작)
 - 3.1절 100주년 기념공연: 안산시립합창단 기념공연 (5시45분 시작)
- 3월 2일: 사회보장연금 혜택 세미나
 장소 및 시간: 캔사스시한인회 사무실 (11시부터) (7800 Shawnee Mission Parkway, Suite 16, Overland Park, KS 66202)
 - 캔사스시한인회와 상록회 공동주최 (연령층에 상관없이 세미나 참석 요청)



**회비는 가족당 \$20.00
 독신은 \$10.00**

도네이션을 \$100 이상하신 분은 자동으로 한인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인회비 보내실 곳
 10409 Marty Ave, Overland Park, KS 66212

한인회 회비 내신 분들 명단

Chung Yun	김진홍	양혜연	정영로 천옥희
J Kim	김춘윤	양영승	정원화
John Doawson	김한석	오명순	정재호
Scott Ahn	김현영	오승현	정지훈
Thomas Lee	김호원 김종자	왕희철	정진미
강미영	데니스조	유갑무	정태경
권수연	독고영식 박인숙	유명재	정판조
김경민	모인환	유혜란	조영애
김광목	문경환	윤정재	조은경
김광웅 황인숙	문현자	윤태석	조정남
김금규	박귀우	은영영	주은은
김다위	박병관	이경남	지형준
김대중	박선희	이승우	차미화
김도준	박성창 박수미	이승현	천우선
김병철	박순현 박상희	이아롱	천창호
김봉석 노현이	박영자	이영일	최병연
김상아	박진숙	이옥순	최성숙
김석환	배규태 배화자	이주찬 원영희	최성오
김성	서지원	이주현	최성용
김성배	송진희	이향경	최현철
김성일	신혜승	임명찬	하오령
김소라	안경호	임소연	한경완
김수환	안성호	임은정	허장
김시현	안승민	장린옥	황민정
김정원	안승철	장영준	
김준배	안진성	전인성	
김준수	안향미	정기호 김세윤	

한인회 도네이션 명단

안경호	\$10,000.00
Asian-American Chamber of Commerce	\$1,500.00
Assi	\$1,100.00
초가	\$1,000.00
왕희철	\$960.00
안성호	\$835.00
상록회	\$500.00
Viva fashion	\$500.00
고 박세연 회장 가족	\$500.00
김성배	\$500.00
장영준	\$500.00
문현자	\$450.00
배규태	\$440.00
김봉석	\$300.00
김호원	\$300.00
베델 장로 교회	\$200.00
제일 장로 교회	\$200.00
박병관	\$200.00
Scott An	\$200.00
Thomas Lee	\$200.00
양영승	\$200.00
이옥순	\$200.00

김금규	\$200.00
임마누엘 감리 교회	\$150.00
이주현	\$150.00
정기호	\$110.00
독고영식	\$100.00
이경남	\$100.00
김광목	\$100.00
김춘윤	\$100.00
김준배	\$100.00
정영로	\$100.00
이주찬	\$100.00
김진홍	\$100.00
LG	Headset, 전화기, TV
중부시장	압력밥솥 2개

\$100 이하 도네이션 명단

총 금액:	\$488.00
유갑무, 나눔의 교회, 김정원, 은영영, 최병연, 천우선&천창호, 윤정재, 모인환, 무명(\$53.00)	
도네이션 TOTAL:	\$22,68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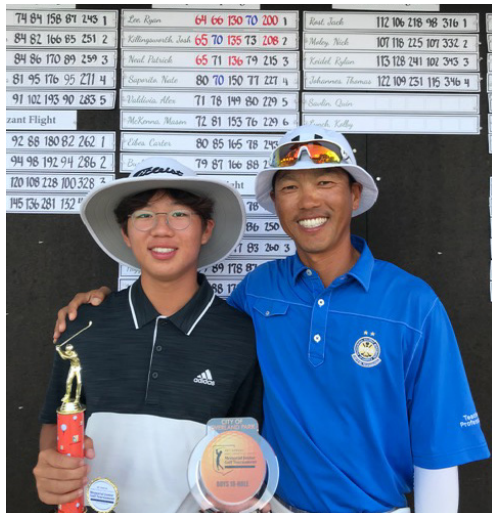
KANSAS "OVERLAND PARK GOLF" 김준배 수석코치 증서부 PGA '올해의 코치상' 수상

캔사스주 "Overland Park Golf" 골프장 수석코치로 근무하는 김준배씨가 증서부 미프로골프대회 (PGA) 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코치상' 을 수상했다.



김준배씨는 전세계 2만7천명의 클래스 A 멤버 중에 약 300명 정도만 가지고 있는 PGA 공인 Teaching 프로 'CPP' 자격증을 비롯해 TPI 골프 매케닉, TPI 주니어 전문가 자격증, First Tee 교사 전문가 자격증 등을 가지고 있으며 US Kids Top 50 코치에 세번이나 선정된 실력과 코치이다.

김준배씨는 "멤버가 100퍼센트 백인으로 구성된 증서부지역에서 받은 상이라 더욱 값지고 기쁘다" 는 소감을 전했다. 김준배씨는 워렌 보켓을 스승으로 모시고 골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의 스승은 2018년 US 오픈과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브룩스 코이프카의 스승이기도 하다. 김준배씨는 현재 프로 골퍼부터 대학 선수들, 고등학교 대표팀 선수들, 초등학교 등 다양한 계층을 가르치고 있다



김준배 코치는 "나는 지금 내 인생의 Back 9 Hole을 치고 있다. 11번 티박스에 서서 티샷을 고민중이다. 전반 9홀에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지금부터 잘 마무리하면 된다. 코스를 정복하기 보다는 코스가 날 받아주는 골프를 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삶을 정복하기보다 즐기는 것처럼 말이다" 라고 전했다. (www.golfop.com)

기사: 캔사스시티한인회 보도위원 안향미

캔사스시티 연합성가단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도와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캔사스시티 연합성가단 2018년 기부금 명세서

기부자 이름	금액
김금숙	115.00
김사라	100.00
김성갑, 이재화	200.00
김수환, 김미영	100.00
김은영	150.00
김준	500.00
노혜옥	200.00
독고영식	100.00
무명	110.00
문경환	100.00
박혜경	200.00
배규영	200.00
안경호(동양마켓)	1,500.00
안성호	1,000.00
안젤라 채	100.00
영락교회	200.00
이주찬, 원영희	200.00
유혜란	100.00
이승우	200.00
이옥순	215.00
이치현	100.00
임상면	1,100.00
장영선	112.00
정지현	115.00
조영애	1,605.00
자규미	100.00
초가(엄덕)	500.00
활유선	100.00
합계	9,322.00

3월 1일 백주년을 기념하며

기미년 3월1일 정오
 양 처럼 순환 꽃 들이
 빨알간 꽃 을 들고 함성 을 지른다
 나의 심장 같은 조국 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나 조국 은
 쓰나미 처럼 밀려 드는 신 무기 와 신 학문 에
 얼음비 흠 뻑 맞은 겨울 나무 처럼 쓰러지고
 쇠 말뚝 꽃인 산정상의 힘 일 까
 정신 과 언어도 가을 낙엽 처럼 땅밑 에서 뒹굴때
 무 자르듯 잘려버린 두동강이 나라에서
 대한독립만세 를 부른다
 그것 도 모자라
 피빛 으로 물들린 동족 끼리 의 총 싸움
 자기 키 보 다 큰 키 의 총 든
 어린 아이 가
 꾸부정 한 할아버지 가슴 에
 총 을 쏘다네
 지금 그 아이 는
 그 때 의 할아버지 가 되어서
 고 층 빨당 이 들어선
 평양 시가지 에
 남 조선 의 태국기 가 휘날리 고
 괴 물 이라고 교육 받던
 미국 의 성조기 가 북 조선 의 불은 국기 와 함께
 세계 의 뉴스 에 소개 되는것 을 본다네
 백 년 의 세월 은
 한 그루 의 나무 가
 그 뿌리 가 땅속 깊이 퍼져서
 한치 밖 에 안되는 나무 가
 10 층 높이 의 거목 이 되듯이

우리 의 조국 도
 100 년 이 지난 지금
 세계 의 길 을 휘잡고 다니는
 자동차 가 있고
 세계인 의 손 에 들려있는 전화기 가 있으며
 각국나라 공항 에 걸려있는 T V 가 있고
 세계인 의 가슴 을 실레이게 만드는
 핵 폭탄 이 있다네
 핑이 에 삽 을 들고
 하얀 옷 에 물들인
 그 피빛 은
 우리 의 정신 이 되어서
 기해년 떠오르는 태양이 도였다네
 얼마나 후 에
 우리 는 두손 번쩍 들고
 평화통일만세 를 외칠까
 3월1일 백주년을 맞이하면서
 소원하여봅니다

토피카 에서 이 경수

Mrs Kyng Soo Yi
 2521 SE, 45th St.
 Topeka, KS. 66609
 785 608 3305
 sunmoo15@gmail.com



캔사스시티 한인회

3.1절 100주년 기념행사

3.1절 100주년 기념 세미나

일시: 2019.3.1 1:30pm

발표: 박사무엘 교수(Central Seminary)

송세준 교수(UMKC)

안맹호 목사(미국원주민선교사)

서현진 교수(KU)

3.1절 100주년 기념식

일시: 2019.3.1 4:00pm

3.1절 기념식

한국학교 3.1절 100주년

사생대회 시상 및 전시회

안산시립 합창단 특별공연

일시: 2019.3.1 5:45pm

3.1절 100주년 기념공연

단장: 이진찬 지휘자: 박신화

반주자: 김민옥, 박은화



장소: Emmanuel Baptist Church
 10100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66212

문의: 캔사스시티 한인회 사무총장 이주현 913.220.3021 합창공연 준비 위원장 조영애 913.749.8384

www.kckorean.net

kckasociety@gmail.com

한국과 미국이 미군에 대한 비용 분담에 서명하다 SOUTH KOREA, US SIGN COST-SHARING DEAL FOR AMERICAN TROOPS

By HYUNG-JIN KIM, Associated Press

한국이 증가하는 미군 주둔 비용 부담하기로 새 협정을 맺으며 수십 년간의 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던 지난 협상 실패를 극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 베트남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 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이같은 발전이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 북한의 침략을 저지한다는 의의로 약 8억 3000만 달러를 제공해 한국 영토에 주둔하는 28,500명의 미군 병력 배치 비용의 40% 가량을 부담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도록 강요해왔다. 한국 외교부는 17일 양국 협상 대표들이 2019년에 한국이 1조 4000억 원(9억 2400만 달러)을 지불해야 한다는 새로운 비용 분담 계획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는 양국이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미군 배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에 전념하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병력의 수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은 1950-1953년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를 재건 한 후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군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미군 주둔은 전쟁 중 피로 겪어온 국가 동맹의 상징임과 동시에 오랜 반미 감정의 원천이기도 하다. 서명이 이루어진 이후 약 20명의 반미 운동가들은 일요일 서울 외교부 건물 근처에서 “미군을 위한 돈

은 더이상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으나 폭력은 보고되지 않았다.

서울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한국 납세자들의 세금 지출과 관련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미국에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한편, 동맹국들은 지난 약 10회에 걸친 회담에서 새로운 비용 분담 계획에 도달하지 못했다. 2014년부터 시작되어 작년까지 한국의 지급액을 포함했던 5년 협상은 2018년 말에 만료되었다. 한국의 일부 보수 주의자들은 북한과의 핵 무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데 더해 약화되는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그들은 트럼프가 한국과의 군비 공유 협상 좌절을 이용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에서 한국에 있는 일부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점을 협상 전략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는 각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지원하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더 많이 부담하지 않는 한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군대를 철수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 언론은 트럼프 정부가 1조 1300억 원(10억 달러)을 요구하기 전, 미군 배치에 대한 한국의 금액 부담을 두 배로 요구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 외교부는 미국이 한국의 지출을 급격하게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트럼프 수석 대행인 Stephen Biegun은 평양을 방문하여 이번 정상 회담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Biegun이 북한의 평양 여행에 대해 브리핑을 한 뒤 한국 행정부는 미확인 아시아 국가에서 2월 17일 주일 미군과 북한 관리들이 다시 만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SEOUL, Sou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truck a new deal Sunday that increases Seoul's contribution for the cost of the American military presence on its soil, overcoming previous failed negotiations that caused worries about their decades-long alliance.

The development comes as President Donald Trump is set to hold his second summi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in Vietnam in late February. South Korea last year provided about \$830 million, covering roughly 40 percent of the cost of the deployment of 28,500 U.S. soldiers whose presence is meant to deter aggression from North Korea. Trump has pushed for South Korea to pay more. On Sunday, chief negotiators from the two countries signed a new cost-sharing plan, which requires South Korea to pay about 1.04 trillion won (\$924 million) in 2019, Seoul's Foreign Ministry said in a statement.

The statement said the two countries reaffirmed the need for a “stable” U.S. military deployment amid the “rapidly changing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inistry said the U.S. assured South Korea that it is committed to the alliance and has no plans to adjust the number of its troops in South Korea.

South Korea began paying for the U.S. military deployment in the early 1990s, after rebuilding its economy from the devastation of the 1950-1953 Korean War. The big U.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is a symbol of the countries' alliance, forged in blood during the war, but also a source of long-running anti-American sentiments.

About 20 anti-U.S. activists rallied near the Foreign Ministry building in Seoul on Sunday, chanting slogans like “No more money for U.S. troops.” No violence was reporte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realizes that Korea does a lot for our alliance and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chief U.S. negotiator Timothy Betts said Sunday in Seoul. “We are very pleased our consultations resulted in agreement that will strengthen transparency and deepen our cooperation and the alliance.” The deal, which involves the spending of South Korean taxpayer money, requires parliamentary approval in South Korea, but not in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Seoul's Foreign Ministry.

The allies had failed to reach a new cost-sharing plan during some 10 rounds of talks. A five-year 2014 deal that covered South Korea's payment last year expired at the end of 2018.

Some conservatives in South Korea voiced concerns over a weakening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t the same time as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to deprive it of its nuclear weapons hit a stalemate. They said Trump might use the failed military cost-sharing negotiations as an excuse to pull back

some U.S. troops in South Korea as a bargaining chip in talks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Trump told CBS' "Face the Nation" on Feb. 3 that he has no plans to withdraw troops from South Korea. During his election campaign, Trump suggested he could pull back troops from South Korea and Japan unless they took on greater a share of the financial burdens of supporting U.S. soldiers deployed there.

South Korean media earlier reported that Trump demanded South Korea double its spending for the U.S. military deployment, before his government eventually asked for 1.13 trillion won (\$1 billion). Seoul's Foreign Ministry said the U.S. had called for a sharp increase in South Korean spending but didn't elaborate.

Trump announced last week that he will sit down with Kim for their second summit. Their first summit in Singapore last June resulted in Kim's vague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term that his propaganda machine previously used when it argued it would only denuclearize after the U.S. withdraws its troops from South Korea.

Trump's top envoy for North Korea, Stephen Biegun, visited Pyongyang last week to work out details of the upcoming summit. After being briefed by Biegun about his Pyongyang trip, South Korea's presidential office said Sunday that U.S. and North Korean officials plan to meet again the week of Feb. 17 in an unidentified Asian country. The U.S. military arrived in South Korea to disarm Japan, which colonized the Korean Peninsula from 1910-45, following its World War II defeat. Most U.S. troops were withdrawn in 1949 but they returned the next year to fight alongside South Korea in the Korean War.

Associated Press journalists Chang Yong Jun and Lee Jin-man contributed to this report.

캔사스 시티

순회 영사 업무



업무 내용

여권, 병역, 사증, 영사확인, 가족관계등록, 국적,
재외국민 등록, J1visa 귀국의무 면제, 범죄경력증명
출입국 사실 증명, 공인인증서, 운전면허, 기타 민원

필요하신 신청 서류는 영사관에 문의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번호 312.822.9485 **

날짜: 2019년 4월 5일 (금요일)

시간: 9:30am ~ 2:30pm

장소: 캔사스 한인회 사무소

7800 Shawnee Mission Pkwy, Ste16

Merriam, KS 66202

케이팝과 화려한 운동화: 김정 은 위원장의 문화 혁명 K-POP AND FANCY SNEAKERS: KIM JONG UN' S CULTURAL REVOLUTION

By ERIC TALMADGE

짜려. 은 바지를 입은 댄서들. 에 어 조던과 비슷한 운동화를 배출하는 공장. 실제로 보는 재미가 있는 TV 드라마. 텔레비전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서부터 소비재의 다양성과 포장에 이르기까지, 김 위원장 아래 다양한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한국을 따라 잡기 위한 방어적인 시도인지 혹은 서구의 소비 문화를 기꺼이 받아 들일 것이라는 그의 의지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 북한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변화는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며 현재까지도 공개적으로 정부나 지도력을 비난하는 이는 위협으로 여겨져 심한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업그레이드는 TV와 지도자에 대한 선전 프로그램 및 다큐멘터리 메뉴이다. 이러한 개선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해외 여행이나 외국 영화, 음악 또는 서적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없도록 하는 심각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북한 대중이 점점 더 외국 대중 문화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김 위원장의 정권 인식을 반영한다.

문화적 익숙함은 특히 북한 엘리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평양의 고급 상점 선반에서 디올부터 소니까지 유명 브랜드 제품을 찾아 보는 것이 익숙하다. 중국에서 온 저렴한 짝퉁 제품들은 전국의 시장에서 흔히 판매된다.

현재 북한에서 한국 영화를 보거나 한국 음악을 듣는 것은 불법이나 많은 이들이 국경을 넘어

문화 교류의 통로를 확보한다. 북한의 교육 채널에는 정기적으로 해외 다큐멘터리의 긴 클립이 담겨 있으며, 해리 포터 서적은 북한의 최대 도서관인 인민 그랜드 스테디 하우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대중 문화계를 개편하려는 시도는 그가 2011년 말 권력을 잡은 직후에 여성 보컬리스트 그룹인 모란봉 밴드와 그의 정권의 “부드러운 얼굴”인 뮤지션들의 앙상블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회원들은 모두 인민군에 속해 있지만, 미니 스커트를 입고 세련된 단발머리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들은 수십 곡의 노래를 발표했으며, 모두 콘서트 투어, DVD 및 TV 방송 시간을 통해 많은 노출을 얻는다.

지난해 2월 북한은 남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비무장 지대 남쪽에 검은 반바지와 붉은 색상의를 착용한 한 여성 5인조 등 5대 여성 음악가를 파견했다. 2개월 후, 김 위원장은 남한의 걸그룹 레드 벨벳이 평양에서 선보인 최초의 K-POP 쇼라고 여겨지는 공연에 관객으로 참석했다. 북한의 공연이 너무나 큰 호평을 받은 이후 김 위원장은 지난달에 다른 친선 여행을 위해 그들을 북경에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적 군사 오케스트라와 클래식 보컬리스트가 전통 “조선옷”을 입고 선보이는 공연이 평양 음악계의 주류로 남아있고, 베이징에서 걸그룹의 공연 역시 군대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와 함께 진행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술을 정치에서

분리하려는 노력이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PYONGYANG, North Korea

Dancers in hot pants. Factories pumping out Air Jordan lookalikes. TV dramas that are actually fun to watch. North Korean pop culture, long dismissed by critics as a kitschy throwback to the dark days of Stalinism, is getting a major upgrade under leader Kim Jong Un. The changes are being seen in everything from television dramas and animation programs to the variety and packaging of consumer goods, which have improved significantly under Kim. Whether it's a defensive attempt to keep up with South Korea or an indication that Kim is willing to embrace aspects of Western consumer culture that his predecessors might have viewed as suspiciously bourgeois isn't clear.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us is to produce a product that suits the people's tastes,” Kim Kyong Hui of the Ryuwon Shoe Factory told The Associated Press recently in the facility's showroom, which is filled with dozens of kinds of shoes for running, volleyball, soccer — even table tennis. “The respected leader Kim Jong Un has instructed us to closely study shoe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learn from their example,” she added, pointing to a pair of flame-red high-top basketball shoes.

To be sure, North Korea remains one of the most insular countries in the world. Change comes cautiously and anyone who openly criticizes the government or leadership or is seen as a threat can expect severe repercussions. But there appears to be more of a will-

ingness under Kim to experiment around some of the edges.

The most visible upgrades are on television and its normal menu of propaganda programs and documentaries in praise of the leaders.

Viewers of the main state-run TV network — the only channel that can be seen anywhere in the country — are now stopping their routines to watch the latest episodes of “The Wild Ginseng Gatherers of the Imjin War,” a historical drama set in the late 16th century, when Korea was struggling against a Japanese invasion.

The anti-Japan, nationalistic theme is nothing new. A similar theme was used for Kim Jong Un's first big contribution to the television lineup, an animated series reviving a popular comic from his father's era called “The Boy General” that made its debut in 2015. The animation, set in the Koguryo period when Korea was fighting off Chinese incursions, was such a hit that people would stop whatever they were doing to watch it. A Boy General game was created for mobile phones. New episodes are believed to be forthcoming.

What the TV drama, first aired last July, and the Boy General animation share that's new is their high production values.

The acting in the movie is grittier and more compelling, the plots more engaging and the sets and costumes are decidedly more elaborate than previous projects. Even the dialogue spoken in Japanese by the villains, played of course by North Korean actors, is generally accurate, though delivered with a heavy North Korean accent. The Boy General, meanwhile, makes skillful use

of computer effects and is visually on par with some of the best animation in the world.

The improvements reflect awareness within Kim's regime that the North Korean public is increasingly familiar with foreign pop culture despite severe restrictions that make it impossible for most to travel abroad or freely experience foreign movies, music or books.

That familiarity is particularly true of the North Korean elite, who are accustomed to seeing brand name products from Dior to Sony on the shelves of upscale stores in Pyongyang, the capital. Cheap knockoffs from China are common in marketplaces around the country.

Watching South Korean movies or listening to South Korean music is illegal. But a lot makes its way over the border and, even for those who would never dream of taking that risk, the officially approved cultural fare isn't entirely void of foreign treats.

Bollywood films are popular in state-run cinemas — 2009's "Three Idiots" with Aamir Khan, for example, was recently shown in a cinema just across the street from Kim Il Sung Square. North Korea's educational channel regularly features long clips from foreign documentaries, and dog-eared Harry Potter books are among the most popular items at the People's Grand Study House, North Korea's biggest library.

North Korea's "approach to the influx of foreign media has been to 'modernize' media production to provide an attractive and competitive product that caters to younger generations for whom older productions are no longer attractive," said Geoffrey See, the founder of the Choson Exchange, a Singapore-based non-profit that supports change in North Korea through exposure to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business, entrepreneurship and law.

"For consumer goods, it also ties into a state policy to encourage more domestic production and import substitution," he said.

Kim's first attempt to update the

pop culture scene started almost as soon as he assumed power in late 2011 with the creation of the Moranbong Band, an ensemble of female vocalists and musicians who are the "soft face" of his regime.

Although the members all belong to the Korean People's Army, they are known for performing in miniskirts and wearing their hair fashionably short. They have released dozens of songs, all of which get lots of exposure through concert tours, DVDs and airtime on television.

They are beginning to look a bit passe, however.

In February last year, North Korea sent some of its top musicians, including a female quintet that performed in black shorts and red tops, south of the Demilitarized Zone to perform during South Korea's Pyeongchang Winter Olympics. Two months later, Kim was in the audience as the South Korean girl group Red Velvet put on what is believed to be the first real K-pop show ever held in Pyongyang. The North Korean act that performed in South Korea was so well received that Kim sent them to Beijing last month for another goodwill tour.

Still, military orchestras and classically trained vocalists who perform in traditional "Choson-ot" gowns remain the mainstay of the Pyongyang musical scene. The girl band's performance in Beijing was backed up by the state's military chorus and orchestra, all in full uniform.

More importantly, there has been no effort to delink the arts from politics.

When the musical group returned to Pyongyang, Kim urged them to continue to "conduct original artistic activities pulsating with the party's ideology" and act "courageously as mouthpieces of the party," according to state media.

1 대 1 면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에 대해 논하다

By JONATHAN LEMIRE, FOSTER KLUG and DEB RIECHMANN, AP

By TAMER FAKAHANY, AP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두 번째 핵 정상 회담에 세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비록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 안전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정상 회담을 준비하는 하노이의 많은 사람들은 다소 들뜨고 희망차 보이기까지 했다.

트럼프는 김 위원장을 만나기 전 베트남 대통령과 총리와의 오전 회의를 가짐으로써 일과를 시작했다. 이후 양국 원수와 보좌관을 동행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친밀한 면담을 가졌다. 트럼프와 김 위원장은 목요일에 추가 공식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하노이에서는 군인, 경찰, 국제 언론인들이 김 위원장의 호텔 밖에서 거리를 가득 메웠으며 수백 명의 시민들도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주변을 지키고 서있었다.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투자를 통해 핵 프로그램을 구축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현재, 북한의 핵무기 포기는 국제 정세 및 외교 관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워싱턴을 떠나기 전에 미국과 북한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는 비핵화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그가 경제적 측면에서, 또 발전 속도 면에서 많은 기록을 세울 나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상 회담 내 그는 평양에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군축 일정을 요구하며 비교적 원활한 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할 경우 미국의 원조를 통해 베트남과 같이 경제적인 번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회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의견은 경제 및 군사적 이익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고 되려 적게 얻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협상 단계부터 너무 많은 것을 제공하고 나면 북한 측에서 비핵화를 할 이유가 적어진다는 이유였다.

정상 회담의 첫 매듭이 채워진 지금, 목요일 진행될 또 한번의 회담에 대해 여론이 집중하고 있다. 어떠한 대화가 오갈 것인지, 어떠한 결론이 이어질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쥐고 있던 강세를 잃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이 새롭게 선보이는 접이식 폰: 획기적인 기술일까? 값 비싼 기계일까? SAMSUNG FOLDING PHONE IS DIFFERENT - BUT ALSO ALMOST \$2,000

By MICHAEL LIEDTKE and ANICK JESDANUN

삼성 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을 겨냥한 혁신 펑크를 없애기 위해 접을 수 있는 화면을 갖춘 스마트폰을 공개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2,000 달러에 육박하는 휴대폰을 구매할지 그리고 이번 공개가 스마트폰 시장에 필요한 창조적인 촉매제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수요일에 발표된 갤럭시 폴드는 4월 26일 1,980 달러에 판매될 예정이다.

삼성이 선보이는 새로운 휴대폰에는 일반적인 스마트폰과 동일한 4.6 인치 스크린이 내장되어 있는데, 화면을 펼치고 나면 7.3 인치 스크린이 있는 미니 태블릿과 같은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 완전히 펼쳐지면 한 화면에서 3개의 앱을 동시 실행할 수 있다. 갤럭시 폴드는 6개의 카메라를 자랑하는데, 뒤쪽에 3개, 안쪽에 2개, 앞면에 1개가 위치하고 있다.

만약 삼성이 옳다면 갤럭시 폴드는 스마트폰 시장을 뒤흔들 혁신적인 제품이다. 한편, 전체 연간 스마트폰 판매는 2017년 최고를 달성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IDC에 따르면 스마트폰 판매가 작년보다 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IDC에 따르면 세계 유수의 스마트폰 판매가

2018년에 4% 감소했다고 한다. 이에 더해,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적어도 초기 접이식 스크린 전화기에 대한 시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한다. 갤럭시 폴드와 같은 휴대폰은 대형 화면을 좋아하고 큰 지갑을 갖고있는 매우 제한된 기술 애호가 시장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 “고 IDC 분석가 라몬 라마스는 말했다. 무어 인사이트의 전략 분석가인 Patrick Moorhead는 갤럭시 폴드가 주류 제품보다는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적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발매가 세계 스마트폰의 톱 셀러인 삼성에게 상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인터뷰에서 삼성 수석 부사장 Justin Denison은 갤럭시 폴드가 “고급 기술”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접을 수 있는 스크린의 출현으로 모바일 장치의 새로운 용도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삼성은 이전 최신 모델의 기능을 반영하는 새로운 갤럭시 S10 폰을 출시했다. S10 라인업의 각 기기는 훌륭한 카메라, 전면 전체를 감싸는 매끄러운 화면, 최소 128기가 바이트의 저장 장치를 자랑한다. 특히, 새로운 휴대폰은 이전 모델보다 넓은 각도로 촬영할 수 있으며 무선

헤드폰 및 스마트 워치를 포함한 다른 장치를 충전할 수 있다. 올 봄에 출시될 네 번째 S10 모델은 신형 5G 셀룰러 네트워크를 통해보다 빠른 무선 속도를 선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지난 몇 년 동안 삼성, 애플 및 기타 업계 최고 제조업체들이 발표한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큰 도약이 아니다.

스마트 폰 혁신의 속도가 유아 단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전보다 오래 동안 보유 기기를 고수하고 있다. 일부 휴대폰 모델의 가격이 1,000 달러 이상으로 치솟기도 했다. 삼성은 스마트폰을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작은 S10 모델을 750 달러에 제공하고 있지만 성능이 뛰어난 모델들은 900 달러와 1,000 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세 가지의 S10 모델은 3월 8일에 프리 오더를 시작으로 발매될 예정이다.

SAN FRANCISCO

Samsung unveiled a highly anticipated smartphone with a foldable screen in an attempt to break the innovation funk that has beset the smartphone market.

But it's far from clear that consumers will embrace a device that retails for almost \$2,000, or that it will provide the creative catalyst the smartphone market needs.

The Galaxy Fold, announced Wednesday in San Francisco, will sell for \$1,980 when it is released April 26.

Consumers willing to pay that hefty price will get a device that can unfold like a wallet. It can work like a traditional smartphone with a 4.6 inch screen or morph into something more like

a mini-tablet with a 7.3 inch screen.

When fully unfolded, the device will be able to simultaneously run three different apps on the screen. The Galaxy Fold will also boast six cameras: three in the back, two on the inside and one on the front. After spending nearly five years developing the technology underlying its foldable-screen phone, Samsung is clearly hoping for a big payoff.

“Get ready for the dawn of a new era,” declared DJ Koh, who oversees Samsung's smartphone division. The new phone, he said, “answers skeptics who said everything has already been done.” If Samsung is right, the Galaxy Fold will spur more people to upgrade their phones. Overall smartphones sales peaked in 2017; Samsung saw its smartphone sales fall 8 percent last year, based on estimates from the research firm International Data Corp. Worldwide, smartphone sales dropped 4 percent in 2018, according to IDC.

But most analysts see a limited market for foldable-screen phones, at least in the early going. Phones like the Galaxy Fold “are likely to sell to a very limited market of technology aficionados who like big screens and have big wallets,” said IDC analyst Ramon Llamas. Although he also believes the Galaxy Fold is more a “status symbol” than mainstream product, Moor Insights & Strategy analyst Patrick Moorhead said the device is symbolically important for Samsung, the top seller of smartphones in the world. “The Fold was icing on the cake showing that Samsung is the company driving new innovations and excitement to the

market,” Moorhead said. There’s no doubt that the Galaxy Fold is “luxury technology,” conceded Justin Denison, a Samsung senior vice president during an interview. But he also predicted that the advent of foldable screens will unleash new uses for mobile devices. “It’s a technological marvel,” Denison said.

“The first time you see a flexible screen, it sort of bends your mind.”

Samsung also released new Galaxy S10 phones that echo the features in other recent models. Each device in the S10 lineup boast fancy cameras, sleek screens covering the entire front of the devices and at least 128 gigabytes of storage — important features to consumers shopping for phones.

The new phones are able take wider-angle shots than previous models and can charge other devices, including wireless headphones and smartwatches. A fourth S10 model, due out this spring, will have faster wireless speeds through the emerging 5G cellular network.

But those improvements aren’t a big leap from the smartphones released during the past few years by Samsung, Apple and other top manufacturers.

“These phones are all variations on a theme we have already seen,” Llamas said. “It’s the same song with a slightly different verse.”

With the pace of smartphone innovation seemingly locked in baby steps, consumers are holding on to their existing devices for longer periods than they have in the past. Compounding that reluctance to upgrade is smartphone sticker shock, which the Galaxy Fold seems unlikely to alleviate. Prices for some existing phones models have soared above \$1,000.

Samsung is offering a slightly smaller S10 model for \$750 in an attempt to make smartphones more affordable, but the higher-end models sell for \$900 and \$1,000. It’s the second time in the past five months that a leading smartphone maker has positioned a \$750 phone as a frugal option. Apple also priced its cheapest new phone, the iPhone XR, released last fall at \$750. Other smartphone

makers gaining market share, including China’s Huawei and Xiaomi, make smartphones that sell for \$500 or less, as well as high-end models.

Two of Samsung’s new models, the S10 and the S10 Plus, are largely incremental upgrades of last year’s S9 and S9 Plus, although they are designed differently. They are about the same size as last year’s models, but will have more display space, as Samsung found additional ways to eliminate waste around the edges. As a byproduct, the top right of the display has a circle or oval cut out for the front-facing cameras.

The lowest-priced “essentials” model, the S10e, has most of the same features, but is 5 percent smaller than the S10 in volume. The S10e also lacks curved edges, a signature feature for many Samsung phones. All three S10 models will come out March 8, with pre-orders starting Thursday.

Samsung trumpeted its 10th anniversary lineup ahead of a major mobile device conference in Barcelona next week. Huawei, which is threatening to overtake Apple as the world’s second biggest seller of smartphones, has promised to use the Spain showcase to preview its own device with a foldable screen and the ability to connect to 5G networks as they become operational during the next few years.

—
Jesdanun reported from New York.

민주당, 트럼프 선언에 대한 결의안을 준비하다

By LAURIE KELLMAN, AP
By ALAN FRAM, AP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남서부 국경 지대에 벽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 조달, 예산 충돌, 이민 정책 및 헌법의 권력 분립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긴급 선언을 중단할 조치를 금요일에 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민주당이 트럼프에 반대하는 자세를 취한다는 자체만으로 유권자들의 반응을 얻을 수도 있다. 이 법안이 발표되면 3월 중순까지 정해진 일정으로 투표가 결정될 것이다.

법안은 공화당이 통제하는 상원으로 이동하여 투표에 맡겨진다. 비상 사태 선포를 위한 규칙을 설명하는 법안은 상원에도 이 문제를 다루도록 요구하고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의회의 노력으로 이를 차단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일부 절차상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불가피한 경우 의회는 트럼프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해 필요하게 될 각 당의 3분의 2 대다수를 소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도 상원 의원인 Susan Collins비상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 공화당원으로서는 최초로 공개적으로 결의안을 밝혔다. 공화당이 53 대 47 의석을 보유하고있는 가운데 GOP 상원 의원 3명은 민주당과 함께 최초 승인을 얻기 위한 결의안을 요구할 것이다.

한편, 트럼프는 의회가 국경 장벽을 세우는 것을 승인 한 것 이상으로 수십억 달러 상당의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국경선을 따라 벽을 짓겠다는 것이 공약을 지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미 의회는 지난주 텍사스 리오 그란데 벨리에서 국경 장벽 55 마일을 건설하기 위해 거의 14 억 달러를 제공하면서 방대한 정부 지출을 승인했다.

이 법안에 서명하는 것 외에도, 트럼프는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다른 당국에 그가 벽체 건설을 위한 추가 66 억 달러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해당 금액은 연방 재산 몰수 기금, 국방부 마약 퇴치 노력 및 군사 건설 기금에서 제외된다.

캔사스 한인업소록 (Kansas Korean Business Directory)

(업소변경, 삭제, 새로운 업소 정보는 kim@kckoreanjournal.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가전제품 수리

A-2 Vacuum and Sewing Machine
816-456-9691
1523 Main St., Grandview, MO 64030
건축/집수리
Cho's Upholstery, 816-444-8656
7702 Wornall Rd KC, MO 64114
Ko Brother's Contractor Builder
913-219-2401
15455 Overbrook Ln., Stanley, KS 66224
Moon Tile 913-522-2311,
12817 W 77th St., Lenexa, KS 66216
Jin D Kim Construction INC, 816-810-6568
8110 N LONDON DR, KC, MO 64151
Young Kim Co, 913-634-2680
7575 W.106th St #13-14, OP, KS 66212
Yi's Home Repair, 913-634-4725
8809 Cottonwood St, Lenexa, KS 66215

구두수선

America Shoe Repair, 816-524-7555
618 SW 3rd St G, Lee's Summit, MO 64063
ACME Shoe Rebuilders, 913-682-5591
211 S. 5th St, Leavenworth, KS 66048
Rosana Shoe Hospital & Tailor
913-469-8070
7556 W 119th, OP, KS 66213
Westfield Shoe Repair, 913-334-2506
8131 State Ave, KC, KS 66112

금융

Family Financial Group:

용자 (장경호) 816-878-8778
106 South Main St, Spring Hill, KS 66083
Merrill Lynch (최원준) 913-906-5299
3401 College Blvd, Leawood, KS 66211

꽃집

Judy's Flowers & Gift, 913-492-1600
12267 W 87th St Pkwy, Lenexa, KS 66215
델리
Break Time Plus, 816-221-4146
2405 Grand Blvd #108, KC, MO 64108
B&L Sub 913-451-8585
7015 College Blvd, #120, OP, KS
Cafe 84, 913-327-8899
10801 Mastin Blvd #190, OP, KS 66210
Corporate Cafe, 913-451-9078
9401 Indian Creek Park Ste #175, OP, KS
Gino's Deli, 913-342-8225
825 N. 7th Street KC, KS 66101
Hill Top Deli, 913-451-3744
10955 Lowell, #120, OP, KS 66210
In And Out, 816-421-5041
1007 Main St, KC, MO 64106
Hyundai Korean Restaurant, 913-682-5352
749 Shawnee, Leavenworth, KS 66048
Neo Delicatessen, 816-421-1788
1000 Walnut St, Ste 205, KC, MO 64106
4 Star Deli & Catering, 913-338-3065
7400 W. 110th St, OP, KS 66210

미용재료

A.Q.Beauty Supply, 816-761-8815
8708 Blue Ridge Blvd, KC, MO 64138
A.Q.Beauty Supply
3812 E. Truman Rd, KC, MO, 816-241-3123
3136 Stadium Dr, KC, MO, 816-861-7068
AQ Beauty Supply, 913-421-1145
1981 N. 63rd Drive KC, KS 66102
A.Q.Beauty Supplies, 913-758-1171
508 Delaware, Leavenworth, KS 66048
Bannister Beauty Supply & Bazaar
816-761-4300,
8236 Bannister Rd, KC, MO 64134
Beauty Essence, 816-753-8199
1319 Brush Creek Blvd, KC, MO 64110
Beauty N More, 816-753-2199
3814 Main St, KC, MO 64111

Super Bunny's Wigs & Boutiques
913-342-2176
3748 State Ave., KC ,KS 66102
CJ's Gold Department Store, 816-444-1500
1240 E. Meyer Blvd, KC, MO 64131
Tres Bliss Beauty/Glamourama, 816-361-5099
1240 E Meyer Blvd, KC, Missouri 64131
GenX, 816-333-7888
1104 E Meyer Blvd, KC, MO 64131
Ebony Wigs & Beauty Supplies, 816-421-0450
1216 Mcgee, KC ,MO 64106
Evelyn's Beauty Supply, 816-842-1400
1911 Baltimore, KC, MO 64108
King's Beauty Supply, 816-444-4333
7720 Troost Ave, KC, MO 64131
K.C. Discount Warehouse, 816-371-7766
932 Minnesota Ave, KC, KS 66101
Mid-K Beauty Supply,
1111 Brooklyn Ave, KC, MO, 816-421-1145
3523 Prospect Ave, KC, MO, 816-921-2255
Metro Beauty Supply, 816-444-9562
1636 E. 63rd St, KC, MO 64110
Metro North Wig Salon, 816-436-7840
400 NW Barry Rd, KC, MO 64155
Metro North Wig Salon, 816-436-7840
220 NE Barry Rd, KC, MO 64155
Unique Beauty Supply, 816-761-5255
7019 E 95th Street, KC, MO 64134
JT Beauty Supply, 816-763-1666
6851 Longview Rd, KC, MO 64134
Sonya Beauty Supply & Variety
816-767-9575
12030 Blue Ridge Blvd, Grandview, MO
Two Brother's Beauty Supply
843 Minnesota Ave, KC, KS, 913-621-1212
6429 State Ave., KC, KS, 913-788-1212
Wig City, 913-633-2550
10701 Shawnee Mission Pkwy
Shawnee, KS 66203

미장원

Great Cuts, 913-341-5265
10312 Metcalf, OP, KS 66212
Hair Care Family, 816-257-5321
17004 E. 24 HWY, Independence, MO 64056
Hyundai Beauty Salon, 913-682-6688
712 S. 5th St, Leavenworth, KS 66048
Sue's Beauty Salon, 913-682-2337
215 S. 5th Street, Leavenworth, KS 66048
Koreana Salon, 913-701-9417
12020 Blue Valley Pkwy, Ste 212, OP, KS
Salon DD, 913-777-0052
7800 Shawnee Mission Pkwy, OP, KS 66202
D & S Salon, 913-428-7827
6471 Quivira Rd, Shawnee, Kansas 66216

베이커리/도넛

Daylight Donuts, 913-884-8400
828 E. Main Gardner, KS 66030
Dave's Bakery & Deli, 816-461-0756
214 W. Maple, Independence, MO 64050
Daylight Donuts, 913-459-8219
8736 Lackman Lenexa, KS 66219
Tours Les Jours, 913-383-2828
10348 Metcalf Ave, OP, KS 66212

변호사

Kutak Rock, L.L.P. (김준범) 816-502-4612,
10412 Metcalf Ave, OP, KS 66212
Ray E. Sousley (Ray Souseley) 816-931-5000
800 Westport Rd, KC, MO 64111
Ji Hyun (Jennifer) Kim, Corporate Finance
Lawyer Stinson Leonard Street
816-691-3464
1201 Walnut Street, Ste 2900, KC, MO 64106

Susan Son, McCrummen Immigration Law
2005 Swift Ave., North KC, MO 64116
병원
건강한의원 (Kan Acupuncture Clinic)원장 윤대
일 314-317-9900, 12935 Olive Blvd.
St. Louis, MO 53141 (주주식당옆)
로한 척추신경 & 침술 클리닉/로한 스킨 클리닉
816-444-1218,
404 Bannister Rd. Suite B, KC, MO 64131
www. lohanchiro.com, www.lohanskin.com
신태전 척추신경 통증 한방재활 병원:
913-649-2044,
7050 W 105th St. O.P. KS 66212
Kacclinic.com

장영준 치과 (State Ave Dental Office)
913-299-8554, 8476
6708 State Ave, KC, KS, 66102
Bethesda 척추/ 침술 클리닉: 913-341-1930
8014 State Line Rd. Suite 101 Leawood KS
Grandview Chiropractic and Acupuncture
Clinic (Dr. Kyunghwan An)
816-217-0020, 12421 Suite O Blue Ridge
Bld., Grandview, 64030
Oriental Acupuncture & Herb (김진수)
816-942-7879
12655 State Line Rd, KC, MO 64145
Excelsior Springs Nursing (황경호)
816-630-3145
1003 Meadowlark Ln, Excelsior Springs, MO

The University of Kansas Health System
Yoon Hang Kim MD 김 윤항 의학박사
대체의학, 침술, Phone 913-588-6208
4000 Cambridge St., Mailstop 1017, 2nd
Floor Sudler, Suite 2053, Kansas City, KS 66160

보석

A&G Jewelry 913-281-4794
4301 State Ave, KC, KS 66102
Han's Jewelers
913-299-3655, 7700 State Ave, KC, KS
913-648-5100, 10446 Metcalf Ave, OP, KS
보안시스템
Z & H Electronics 913-250-0677
605 Brookwood, Lansing, KS 66043

보험과 부동산/세무회계
BizPro 비즈 프로 세무, 회계/플래티넘 부동산 :
Junsu Kim, Mia Bahn, 913-383-8558
10322 Metcalf Ave. O.P. KS 66212,
의료보험 에이전트 : 이리사 913-217-5169,
7180 W 107th St, #10, OP, KS
LeeLisa2014@yahoo.com
Bae Brothers Co (816) 333-1285
1240 E Meyer Blvd, Ste A, KC, MO 64131
Marks, Nelson Vohland & Campbell, Radetic
LLC (박정훈) 913-498-9000
7701 College Blvd Suite 150, OP, KS
Insurance Agent, Lisa Lee Moran, 913-
217-5169, lisa@autohomekc.com, 7180 W
107th St #10, OP, KS 66217

부동산 중개

블락 부동산 BLOCKS Real Estate
Jennifer Jang, 장지연, 816-729-6232
jjang@blockllc.com
Paul Shin, 816-560-0988
pshin@moweivwith platinum.com
Explore Real Estate (박영림) 913-522-2475
11267 Strang Line Rd, Lenexa, KS 66215
Keller William Realty Partners Inc. (양혜연)
913-266-5897, 913-484-6126 8005 W
110th St Suite 100, OP, KS 66210
K & K Inc.(이미애) 816-716-9001
1714-1726 W. 39th St, KC, MO 64111
6413 N. Park Ave, Gladston, MO 64118
사진관/프레임
Art & Frame 웨어하우스

98854 N Boardwalk, KC, MO, 816-584-8009
9216 Metcalf Ave, OP, KS, 913-385-9199
1032 W 136th St, KC, MO, 816-941-2307
상담/용역
Premier Medical Personnel (Nancy)
913-345-8484, 11038 Oakmont, OP, KS
세탁소
Country Meadows Laundrymat
816-524-5677
908 NE. Chipman, Lee's Summit, MO 64085
Country Cleaner, 816-373-3324
17201 E. 40 Hwy #109, Independence, MO
Central Coin Laundry 913-621-2224
1036 Central Ave., KC ,KS 66102
Dry Cleaner 816-891-8448
10018 N, W. Executive Hill Blvd, KC, MO
Diamond Cleaner 913-642-8353
6701 W. 75TH ST, OP, KS 66204
Easy Cash & Wash 816-924-3235
7000 Eastwood Trfy, KC, MO 64129
Holiday Cleaners (913) 631-6181
7945 E Frontage Rd, OP, KS 66204
Iida's Daisy Fresh Cleaners 816-436-6648
7521 N. Oak TRFWY, Gladston, MO 64118
Independence Coin Laundry 816-252-7776,
10816 E. 23rd St South, Independence, MO
Prestige Cleaners 816-763-2522
12200 Blue Ridge EXT #B, Grandview, MO
Koin Kleener 816-453-6303
601 N. W. Englewood, KC, MO 64118
Koko Laundry 913-682-2526
604 Pottawatomie St, Leavenworth, KS
Leawood Village Cleaners 816-942-3838
13009 State Line Rd, KC, MO 64145
Laundry Basket 816-923-0979
4418 E. 39th St, KC, MO 64128
Maple Hill Laundry 913-362-4525
2424 S. 34th St, KC, KS 66101
Oak Park Cleaner 913-599-3040
12230 W. 95th ST., Lenexa, KS 66215
Old Town Dry Cleaner 816-252-1677
3908 Lynn Court., Independence ,MO
Old Town Laundromat 816-254-4501
3910 Lynn Court., Independence, MO
Plattewoods Laundry 816-587-6695
6740 Tower Rd., Plattewood, MO 64151
Quinn's Laundry 816-322-1886
124 North Ave., Belton, MO 64012
Q. Cleaners 913-390-6181
2107 E. 151st St., Olathe ,KS 66062
Royal Master Cleaner 816-842-3375
1505 Grand Ave., KC, MO 64108
Rainbow Cleaners Drive In 913-236-9295
4511 Rainbow Blvd, KC, KS 66103
ST Coin Laundry 816-833-3021
2230 S Norton Ave D, Independence, MO
Supreme Cleaners & Shirt Laundry
816-761-3707
11114 Blue Ridge Blvd, KC, MO
Sta-Clean Cleaners, 816-421-6223
1120 McGee St., KC, MO 64106
Shamrock Dry Cleaners 816-942-2324
604 E. 99th St., KC, MO 64131
Shirley's Dry Cleaners, 816-444-4779
7936 Troost Ave., KC, MO 64131
Sparkling Coin Laundry, 816-741-3767
4605 NW. Gateway, Riverside, MO 64150
Sunshine Fabricare, 913-649-8364
8730 Santa Fe Dr., OP ,KS 66212
Speedy Laundry, 913-631-6773
10403 W. 75th St, Shawnee, KS 66214
Tomahawk Laundromat 913-268-3535
10902 W 74th Terrace, Shawnee, KS 66203
The Dry Cleaners(MCI) 816-891-8448
10018 NW. Executives Hill Dr, KC, MO

Tae's Laundry, 913-782-9345
223 S. Kansas Ave, Olathe, KS 66061
VIP Cleaner, 913-894-6606
10400 W. 103rd St, OP, KS 66215
Won's Cleaners, 913-722-1681
5921 Johnson Dr., Mission, KS 66202
Westwood Village Laundromat
913-432-8479
2801 W. 47th St., Westwood ,KS 66205
Young's Dry Cleaning and Laundromat
1274 Merriam Ln, KC, KS 66103
스프링클러
Heritage Irrigation Co., 913-205-5922
11511 S Strang Line Rd Suite A, Olathe, KS
식당
조선 갈비 (Chosun), 913-378-3534
12611 Metcalf Ave, OP, KS 66213
초가 (Choga), 913-385-2151
6920 W. 105th St, OP ,KS 66212
소반 (Sobahn) 913-384-1688
7800 W 63rd St #3, OP, KS 66202
Bob Wasabi, 816-753-5797
1726 W 39th St, KC, MO 64111
Gangnam Restaurant (913) 383-8888
10326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Cafe Vie (베트남 쌀국수) 913-558-0600
10330 Metcalf Ave, OP, KS 66212
Haru Sushi, 816-942-1333
13133 Stateline Rd, KC, MO 64145
KoKoDAK 913-730-8054
14856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kodakchicken.com
Kokoro Maki Japaness Restaurant
340 W 75th St, KC, MO
(816) 363-0678 kokoromaki.com
Maru Sushi and Grill, 913-258-5879
5621 W 135th St #2620, OP, KS 66224
New Peking, 816-531-6969
540 Westport Rd, Kansas City, MO 64111
O Cafe (Korean), 785-312-9211
1530 W 6th St, Lawrence, KS 66044
Red Snapper, 816-333-8899
8430 Ward Pkwy, KC, MO 64114
Sushi Uni, 913-322-8667
12841 W 87th St Pkwy, Lenexa, KS 66215
Wa Japaness Restaurant, 785-843-1990
740 Masachusetts, Lawrence, KS 66044
식품점
동양식품 Oriental Supermarket
913-341-3345
10336 Metcalf Ave, OP, KS 66212
중앙식품 Joong Ang Grocery
913-384-4989
7800 W 63rd St #1, OP, KS 66202
현대 식품점, 913-651-2622
749 Shawnee St, Leavenworth, KS 66048
Arirang Market, 913-680-1381
626 B Cherokee St, Leavenworth, KS 66048
Chunco Foods, 816-283-0716
1400 E. 2nd St., KC, MO 64106
JOY 식품, 913-321-3177
930 Minnesota Ave, KC, KS 66010
여행사
Wing Gate Travel , 913-451-9200
8645 College Blvd #100, OP, KS 66210
오디오
Sound of Stereo,913-281-4601
920 Minnesota Ave KC, KS, 66101
의류
Bargain City Bazaar, 913-342-7002
916 Minnesota Ave, KC, KS 66101
Fashion In Motion, 816-361-2552
1256 E. Meyer Blvd, KC, MO 64131
Jung Tailoring Shop, 816-228-9191
103 SW State Route 7, Blue Springs, MO
Rome's Boutique, 913-772-6885
414 Delaware St., Leavenworth, KS 66048
So Young Fashion, 816-421-1171
400 Grand Ave #66, KC, MO 64106
Young Fashion, 816-861-0006

3116 Prospect Ave, KC, MO 64128
Midway Shopping Center, 913-281-7035
4305 State Ave, KC, KS 66102
선물/화장품
동양 백화점/비디오 Oriental Gifts & Video
913-961-2533
10346 Metcalf Ave, OP, KS 66212
Mary Kay, 913-397-6706
11730 W. 135St #11, OP, KS 66221
Olathe BP, 913-402-9331
1605 E Santa Fe, Olathe, KS 66061
의류수선
Speedy Alteration, 913-248-1151
7727 Quivira Rd, Shawnee Mission, KS
66216
Corinth Alteration, 913-383-9560
4185 Somerset Dr, Praire Village, KS 66208
Camelot Court Alteration, 913-327-5525
11831 Roe Ave, Leawood, KS 66209
Kim's Tailor Shop, 913-451-2727
4872 W. 119th St, Leawood, KS 66209
Kim's Alteration, 816-228-1355
919 W. 40 HWY, Blue Springs, MO 64105
K.C.Alteration, 816-474-8333
814 Grand Ave., KC, MO 64106
Lee's Alteration, 816-765-2255
7011 E. Bannister Rd., KC, MO 64134
Leawood Alteration, 816-942-8057
12925 State Line., KC, MO 64145
Lenexa Fashion & Alteration, 913-888-0960
14924 W. 87th St, Lenexa ,KS 66215
M & J Tailor Shop, 913-782-8107
18280 157 ST, Olathe, KS 66062
Maxines, 913-341-2534
9528 Hadley, OP, KS 66212
Park's Alteration, 816-221-3129
304 E. 21st Ave., KC, MO 64116
Tom Tailor Shop, 913-888-8737
10392 Mastin, OP, KS 66212
Quivira Taylor, 913-851-4991
11670 W. 135th St, OP, KS 66221
자동차 수리/판매/부속
Elim Motor (김종수) - 판매, 913-371-4841
29 S. 18th St, KC, KS 66102
Jo's Auto & Body Center Inc.
(정판조) - 수리,816-923-0330
3333 Stadium Dr, KC, MO 64128
Shawnee Auto Motive Center
(권경수) - 수리 913-631-3497
11015 W. 58th St, Shawnee ,KS 66023
전자회사
Maxon America, Inc., 913-859-9515
11535 W 83rd Ter, Lenexa, KS 66214
www.maxonamerica.com
DataLocker, 913-310-9088
7007 College Blvd #240, OP, KS 66211
잡화
Dollar Mart, 816-861-2223
3105 Prospect Ave, KC, MO 64128
Hyesuk Haglin, 816-822-0375
6025 State Line Rd., KC, MO 64113
조경/잔디
Lee's Lawn & Tree Service, 816-524-7582
11714 Milton Thompson Rd
Lee's Summit, MO 64068
Young Brothers Lawn & Tree Service
816-616-3292, 816-318-1667
2101 E 183rd St, Belton, MO 64012
주류 판매
Bi - Lite, 816-761-7337
12818 S. 71 HWY, Grandview, MO 64030
C & J Enterprise Inc, 816-253-9112
#2 Robin Dr, Agency, MO 64401
Deluxe Liquor, 816-231-8119
4205 E. 24th St, KC, MO 64127
ISO Growell Corp, 913-383-5344
10412 Metcalf Ave., OP ,KS 66212
J&L Discount Wines & Spirits, 913-648-1770
10304 Metcalf Ave., OP ,KS 66212
KC Liquor, 913-441-8423

10320 Kansas Ave, Bonner Springs, KS
LG Infocomm USA, INC, 913-498-5912
6201 College Blvd Suite 350, OP, KS 66211
Ray's Discount Liquor, 913-268-9862
7422 Nieman Rd., Shawnee, KS 66203
Shamrock Liquor
10326 Blue Ridge Blvd, KC, MO 64134
816-966-9917
11810 Blue Ridge Blvd, KC, MO 64134
816-763-3380
Sommer's Liquor, 913-371-2020
146 S. 18th St, KC, KS 66102
Tec Net Int'l Inc, 816-584-8638
1420 NW Vivion Rd #109, KC, MO 64118
Tekk Incorporated, 816-746-1098
226 NW. Parkway, Riverside, MO 64150
Westport Wine & Liquor, 816-561-3500
1106 Westport Rd, KC ,MO 64111
주유소
INNER CITY OIL, 913-371-4521
540 S. 10 th Street, KC ,KS 66102
Swansea Inc./Phillip 66
913-488-163/785-842-6816
1801 W 2nd St., Lawrence, KS 66044
청소용품
T.B.S Co. Inc., 913-722-1106
3054 S.24th Street, KC, KS 66103
www.jaytbs.com
청소
Am-Ko Building Maintenance, INC.
(John Lee) 913-980-8888
P.O. Box 2277, Shawnee Mission, KS 66201
GBM, 913-209-3639
12057 Hayes Ln #144., OP, KS 66213
G.Y. Janitorial Service, 913-239-9848
13908 Bradshaw., OP ,KS 66221
HBM INC., 913-321-3303
400 State Ave, KC, KS 66106
Jong's Building Service, 816-651-6007
11717 W. 99th St, OP ,KS 66214
Lee's Janitorial Service, 913-962-0742
7110 Long Ave., Shawnee, KS 66216
Park's Maintenance, 816-243-5669
7512 N. Rhode Ave KC ,MO 64153
World Wide Cleaning Company
913-290-9638
13403 Ballentine Rd, OP, KS 66213
Young's Service Corp., 913-683-0308
2021 Cambridge., Leavenworth ,KS 66048
카운셀링
캔사스 시티 카운셀링 센터
(KC Counseling Center) 916-929-5557
10100 Metcalf Ave, O.P. KS 66212
컨비니언스 스토어
ConerSide Market, 816-254-2221
108 N. Sterling Ave, Sugar Creek, MO
64054
Pop's Quik Shop, 816-483-5095
3402 E. 9th St., KC ,MO 64124
컨설팅
Sook Park, 785-296-3760
1000 S. W. Jackson Ave # 100., Topeka ,KS
태권도
Choon Lee's Academy Of Taekwondo
121 NE. 72nd St., Gladston, MO
816-439-5909
1975 N. 63rd St., KC ,KS
913-299-5425,
11453 W. 64th St, Shawnee, KS 66203
913-631-1414
Ko's Black Belt Academy
3413 NW. Mill Dr., Blue Springs, MO 64015
816-224-0000
3923 S . Noland, Independence, MO 64055
816-254-0000
818 SW Blue Pkwy, Lee's Summit, MO
64063
816-525-4300,
2045 W. Kansas, Liberty, MO 64068
816-781-3800

11632 W. 135th St, OP, KS 66221
913-897-1300,
10528 Metcalf, OP, KS 66212
913-341-2000
Kim's Taekwondo Pavilion, 913-897-0456
10002 W. 129th St, OP, KS 66213
USA Taekwondo Academy, 913-685-4858,
KMC Taekwondo Academy, 913-2052-0232
8841 Glenwood St., OP, KS 66212
Korea America Taekwondo Education Inc.
2127 E 151st Olathe, KS 66062
913-390-0888
12817 W. 87th Street Parkway Lenexa, KS
913-310-9600
22338 W. 66th Street, Shawnee, KS 66226
913-441-6520,
19321 E. US-40 Highway Suite P
Independence, MO 64055
816-795-1090
3715 W. 133rd Street, Leawood, KS 66209
913-498-0910
14877 Metcalf Ave., OP, KS 66223
913-851-1960
Kim Dokhan USA, 816-356-8282
6129 Blueridge Blvd Raytown, MO 64133
Master's Martial Arts Academy
913-681-1022
14868 Metcalf Ave, OP, KS 66223
Pak's Academy Of Taekwondo
411 Pine St, Raymore, MO 64083
816-322-5000
SunYi Traditional Taekwondo Academy
785-266-8662
410 SW 33rd St, Topeka, KS
투자/상담
KJ Consulting
P.O. Box 1775, Lawrence, KS 66044
특수기술
Spartan Laser Inc., 816-353-7700
6501 Hadley, KC, MO 64133
학교/학원/보육
놀이방: ABC Day Care, 913-651-6907
1510 10th Ave., Leavenworth, KS 66048
학습지: KUMON 구문 영어,수학
8502 W 133rd St, OP, KS, 913-897-1111
151st St. & Nall Ave., 913-681-0400
kumon.com/stanley
골프: 개인교습, 김준배 PGA 프로골퍼,
913-897-3809, 913-558-7997/
www.golfop.com, jbgkolf@gmail.com
미술: 이안 아트스쿨, 816-646-1376
newspring78@naver.com
www.artstudioian.com
8841 Glenwood St. O.P. KS 66212
음악: KC 음악학원 (피아노 : 913-272-1177,
바이올린 913-687-6784)
한글교육 : 캔사스 시티 한국학교 816-469-
8110. 8841 Glenwood St. O.P. KS 66212
호텔/모텔/여관
Crown Lodge, 816-353-3000
8500 E State Rte 350, KC, MO 64133
Comfort Inn, 816-632-3909
1803 Comfort Lane, Cameron, MO 64429
Ramada Inn, 620-343-2200
2700 W. 18th Ave., Emporia, KS 66801
Village Inn, 785-242-4433
2520 S. Main St., Ottawa ,KS 66067
화방/사진
Cha Fine Art Studio, 913-962-2118
6656 Charles Dr., Shawnee, MO 66216
Diane Flynn-Yi Portrait, 816-532-8026
14605 Killarney Lane, Smithville, MO 64089
하팅/쿨링
Bee Tech Service, 913-980-2464
1106 S Palmer Ln, Olathe, KS 66061
Dokko's Specialty Service, 913-685-0451
12824 Mastin St, OP, KS 66213
기타
Yedang Village LLC, 913-972-6645
13881 138th St. #104, Olathe ,KS 66062

새로운 세법의 영향으로 충격을 받은 미국 납세자들

I OWE HOW MUCH? AMERICANS SHOCKED BY IMPACT OF NEW TAX LAW

By SARAH SKIDMORE SELL

잠시만, 내가 국세청에 빚이 있다고?
새로운 연방 세법에 따른 첫 번째 세금 신고 기간은 일부 미국인, 특히 정부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놀라움, 혼란스러움, 때로는 두려움을 주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새로운 조세법으로 세금 감면을 약속한 바 있으며 실제로 이 변화를 통해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이득을 보게 된다. 세무 정책 센터 (Tax Policy Center)는 개안 된 세법이 개인 소득세를 평균 1260 달러 정도 절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모든 납세자들이 거대한 감세 혜택을 맞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납세자들은 개정된 법안 안에서 고용주들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바로잡아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완벽하지 못하며 많은 근로자들이 세금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이제 국세청은 그 돈을 원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개인 면제, 자녀 세액 공제, 제한된 일반 공제 등을 배제했으며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을 대부분 뒤집어 놓았다. 납세자들은 갑작스런 변화에 다소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납세자들을 향해 새로운 세법의 효과를 측정할 때 환급이나 국세청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사로잡히지 말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미국인들이 환급에 의존한다는 조사 결과를 기반하면 일반적으로 미국 납세자의 약 4분의 1이 환급을 받아 평균 2,800 달러를 얻는다. 일부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환급 받는 금액이 올해 가장 큰 수입인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신고된 2주째 평균 세금 환급액이 1,949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8.7%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총 환급액은 16%가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4월에 끝나는 과세 기간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경고한다. 또한 2월 8일 기준 2천 7백만 달러의 수익률은 부분적 정부 폐쇄로 인해 1년 전에 비해 10% 감소했다. 더 많은 서류가 처리되고 환불이 발행되고 국세청이 전속력으로 회복되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세법의 영향은 조기 신고자를 경악케 했고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을 걱정시켰다. 문제의 일부는 직원과 고용주

가 법률 변경 사항에 맞춰 월급에서 원천 징수를 조정 (또는 조정하지 않은 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고용주가 종업원 급여에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얼마만큼을 배정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안 된 원천 징수 지침을 발표했다. 만약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크다면 환급을 받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 국세청에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에 따라 납세와 환급 과정이 이전에 비해 복잡해졌다.

정부 책임 사무국 (Office of Accountability Office)은 작년 여름 보고서에서 약 3,000만명의 근로자가 월급에서 원천 징수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으로 가져간 월급이 컸으나 그에 따라 세금 부담은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그것은 정상보다 약 3백만명 많은 노동자이다. 일부 납세자들은 적절한 금액을 원천 징수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월급 점검을 하라는 국세청의 조언에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 6명 중 1명을 지불하는 급여 프로세서 ADP는 납세자 대다수가 작년의 원천 징수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납세자는 자신의 납세 의무 또는 유효 세율을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중종 회계사 또는 세금 준비 소프트웨어로부터 받은 요약본에서 얻을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요약본이나 양식 1040에 대한 “총세”를 볼 수 있다. 이 좌표들이 완벽한 조치는 아니지만 보다 넓은 이해도와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환급을 받는 것이 반드시 좋

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순익분기점을 넘기는 것조차도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좋은 결과이다. 환불을 받는다는 것은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Betterment에서 세금을 담당하고 CPA 및 공인 취득자인 Eric Bronnenkant는 사람들의 삶은 결혼, 이혼, 자녀, 이사 또는 직업 변화와 같은 세금에 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한다며, 평균 납세자는 이러한 변화 중 일부가 미칠 수 있는 전체 영향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Wait, I owe the IRS?
The first tax filing season under the new federal tax law is proving to be surprising, confusing — and occasionally frightening — for some Americans, especially those accustomed to getting money back from the government.

Take Andy Kraft and Amy Elias of Portland, Oregon. The couple had grown comfortable getting a small refund each year, a few hundred dollars or more. Then they found out they owe \$10,160 this year.

“I will never forget the moment, I thought ‘We look good’ and then we added in the next W-2 and my jaw hit the floor,” Kraft said. “There was no way I wanted to believe that what I was looking at was accurate.”

President Trump promised a reduction in taxes with the new law. And by most measures, the majority of Americans will see one. The nonpartisan Tax Policy Center projected the tax law would reduce individual income taxes by about \$1,260 on aver-



age, although it benefits higher earners more.

So not everyone will see a massive tax bill or a drop in their refund. Some people already saw the benefit in the form of bigger paychecks. That's because the law forced employers to change what they withheld. But the system is far from perfect, and many workers didn't have enough in taxes set aside. Now, the IRS wants that money.

In addition, the law also eliminated personal exemptions, increased child credits, limited popular deductions and generally upended many familiar practices that determine what happens at tax time. That has taxpayers feeling a bit unmoored.

"We were very comfortable with our tax law, it had basically been there since 1986, suddenly all these things that were very important to people changed ... it's all different," said Howard Gleckman, a senior fellow at the Tax Policy Center.

Kraft and Elias are able to pay their tax bill but he's still stunned. He even tried to reverse-engineer things to figure out where they went wrong, diving into page after page of IRS rules. He painstakingly put together all the numbers. The couple ultimately asked a CPA to verify the figures they were seeing on TurboTax. Crushing—ly, they were correct.

Their total tax was up slightly — by about \$300 because of changes to their financial picture. Their effective tax rate was lower, but they still owed the government.

"I feel like I have reached a stage of grief of acceptance," he said. "In a twisted way I should have been paying this all year and now I just have to pay it in one lump sum."

A number of experts such as

Gleckman are urging taxpayers to obsess less about their refund or what they owe when measuring the effect of the new tax law. These are just a sliver of your tax picture.

But the truth is, many Americans have come to rely on refunds. About three-quarters of U.S. taxpayers typically get one and they had averaged around \$2,800. For some low-income households it is the biggest cash infusion of the year.

The IRS reported Thursday that the average tax refund as of the second week of filing season was \$1,949, down 8.7 percent from the year earlier. The total number of refunds is down 16 percent.

Experts caution it is too early to draw conclusions about a tax season that ends in April. Plus, the number of returns — 27 million as of Feb. 8 — is down 10 percent from a year ago, due in part to the partial government shutdown. The picture will become much clearer as more filings are processed, refunds are issued and the IRS gets back up to full speed.

All the same, the initial results have surprised early filers and worried those who haven't yet tackled their taxes.

Part of the problem centers around how employees and employers adjusted (or didn't adjust) withholdings from paychecks to account for the law's changes. The government issued updated withholding guidelines to help employers determine how much to set aside from an employee's paycheck to cover taxes. Withhold too much and you get a refund at tax time; too little and you owe.

It is at best, an estimate. But it's an estimate that grew drastically more difficult to make under the new law.

The Government Account—

ability Office estimated in a report last summer that about 30 million workers had too little withheld from their paychecks, which made their take home pay bigger but increased their tax liability. That's about 3 million more workers than normal.

Few taxpayers appear to have heeded the IRS' advice to do a "paycheck checkup" to make sure they had the proper amount withheld. Payroll processor ADP, which is responsible for paying one out of every six Americans, said the vast majority of people in its system didn't update their withholdings last year.

Some taxpayers who did make adjustments found they couldn't get it quite right.

Kevin McCreanor of Milton, Georgia and his wife normally get a sizeable refund each year — it was more than \$12,000 last year. While they know waiting for a large refund isn't the best strategy financially, they like a refund and they put anything they get back toward their daughters' education. Their income, earned primarily from his wife's job in telecom, can vary greatly, so there was comfort in never facing a big bill.

The couple increased her paycheck withholdings to ensure the same but found they are only getting back \$519 this year. Their income and tax rate did increase, and McCreanor acknowledges there is probably more he could have done to prepare but he is very disappointed all the same.

Some surprises were welcome, however. Brian Goodell and his wife typically face a tax bill of anywhere from \$10,000 to \$15,000 each year. But this year the Tigard, Oregon, couple is getting a \$15,000 refund. They believe they got some benefit from the increased child

tax credit. They also made more charitable donations and increased their withholdings. While Goodell isn't entirely sure why it worked out so well, he'll gladly take the refund.

Taxpayers can get a better sense of how they fared by looking at their tax liability or effective tax rate. This information is often available on the summary received from an accountant or tax preparation software. They can also look at the "total tax" on those summaries or form 1040. These are not perfect measures either, but provide some perspective.

And remember that getting a refund is not necessarily a good thing. Breaking even is really the best outcome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If you get a refund, that means the government has been holding onto your money when you could have been using it.

Additionally, consider that taxes are rarely an equal comparison from year-to-year, said Eric Bronnenkant, the head of tax at Betterment and a CPA and certified financial planner. People's lives change in ways that can dramatically influence their taxes, such as marriages, divorces, kids, moving or job changes. The average taxpayer may not realize the full impact some of these changes might have.

"I am not surprised by the reaction people are having," Bronnenkant said. "I think for some people the reaction is more justified than others."

캔자스 CHIEFS의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 선수가 MVP 및 최고의 공격수로 선정되다

CHIEFS QB MAHOMES HONORED AS MVP AND TOP OFFENSIVE PLAYER

By BARRY WILNER, AP Pro Football Writer

패트릭 마홈스 (Patrick Mahomes)이 획기적인 시즌을 마치며 토요일 밤 NFL Honors에서 Associated Press 2018 MVP와 올해의 최고의 공격수 상을 수상했다. 그가 함께한 두 번째 프로 시즌에서 마홈스는 독창적이고 숨막히는 플레이를 선보이며 1993년 이후 처음으로 Kansas City를 AFC 타이틀 게임까지 이끌어냈다.

“정말이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의미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소망하는 상은 슈퍼볼 우승컵입니다” 고 그는 대답했다. 한편, 마홈스는 리그를 통괄하는 전국 패널로부터 41 표를 받아, 뉴 올리언스 쿼터백 드류 브리스 (Drew Brees)의 9 개를 제치고 상을 수상했다.

이전 프로 경기 경험이 단 한 번 뿐이던 마홈스는 베테랑 알렉스 스미스 (Alex Smith)가 떠난 빈 자리를 채우며 캔자스 시티에게 호기심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캔자스 시티가 1993년 시즌 이후 처음으로 AFC 타이틀 게임에 진출함에 있어 그가 주역이었다는 사실은 금세 밝혀졌다. 이번 시즌 동안 마홈스가 50개의 터치다운, 5,097 야드 진출, 그리고 113.8 쿼터백 등급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의 독창적인 경기 진행은 모든 각도에서 공을 던져 내부와 외부 포켓을 만들며 Chiefs의 팬 층과

리그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마홈스는 MVP에서 우승한 6 번째 쿼터백이며 11 번째 MVP 선수이다. 이는 1970년 캔자스가 NFL에 합류한 이후로 단 한번도 수상하지 못한 상이다.

“제가 훌륭한 상황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뛰어난 쿼터백인 알렉스 스미스를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제가 최대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매일 애쓰는 좋은 팀을 만났습니다. 게다가 열정적인 팬들 앞에서 경기를 할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고 그는 말했다.

램스의 수비형 태클 Aaron Donald는 올해의 수비수 상을 수상했고, 시카고의 Matt Nagy는 Bears와의 첫 시즌에 올해의 코치로 선정되었다. 콜츠의 쿼터백 Andrew Luck은 2017년 시즌을 어깨 부상으로 부진했던 실적을 극복하고 최고의 재기 선수상 (The Comeback Player of the Year)로 선정되었다. 자이언츠의 러닝백 Saquon Barkley는 수비 신인상을, 인디애나폴리스 라인 배커 Darius Leonard에게는 공격 신인상이 주어졌다. 초안에서 전반적으로 선정된 클리블랜드의 쿼터백은 바클리 한 자리 앞에 머물며 21 ½ 표를 얻었다. Barkley는 721 야드 동안 팀 하이 91 리셉션을 만들었고, 스크럼에서 2,028 야드는 NFL을 이끌었다.

Vic Fangio는 시카고 베어스의 수비형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다 덴버에서 헤드 코치 자리를 제안 받았으며, Associated Press

2018 NFL 어시스턴트 코치 상을 수상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 드 Chris Long은 올해의 Walter Payton Man상 사회 봉사상을 수상했다.

ATLANTA

Patrick Mahomes' breathtaking breakthrough season earned him the NFL's Most Valuable Player award. The Chiefs quarterback landed a pair of honors at NFL Honors on Saturday night, taking The Associated Press 2018 MVP and Offensive Player of the Year awards. In his second pro season, Mahomes led Kansas City to its first AFC title game since 1993 with some of the most creative and clutch plays the league has seen in years.

"I'm so humbled," he said.

"This is just the beginning.

We've got a long ways to go.

"It is an honor. It's a hard award to win. The next award I hope I can get is the Super Bowl."

Mahomes received 41 votes from a nationwide panel of media members who regularly cover the league. New Orleans quarterback Drew Brees got the other nine.

With only one previous start, Mahomes entered the season as something of a curiosity in Kansas City after the Chiefs traded veteran Alex Smith to open up the job. It didn't take long to erase any doubts as Mahomes led the Chiefs to their first AFC title game since the 1993 season, throwing for 50 touchdowns, 5,097 yards and had a 113.8 QB rating, trailing only Brees. Mahomes' ingenuity — the guy can throw from all angles and make plays inside and outside the pocket — energized the Chiefs' fan base and excited fans across the league.

"The play is never dead. He can find new ways to get you the ball," Chiefs All-Pro tight end Travis Kelce said. "It may look

like a screwball, a slider here or there, but it'll get to you eventually."

Mahomes is the sixth straight quarterback and 11th of the past 12 years to win MVP. No Kansas City player had won the award since the Chiefs joined the NFL in 1970. Earlier, he was selected as the top offensive player, beating Brees 30 votes to 16.

"Yeah, I mean, it's awesome ... I got put into a great situation," he said. "I got to learn behind a great quarterback in Alex Smith. I got to be on a team with a lot of playmakers who helped me excel my game and make me look really good on a daily basis. And, then, to be able to go out there and win football games in front of a passionate fan base is something I get the luxury of doing."

Rams defensive tackle Aaron Donald, who will play in Sunday's Super Bowl against New England, took his second straight Defensive Player of the Year award. Donald, the only unanimous All-Pro this season and the first Rams player selected for top defensive honor, joins Lawrence Taylor and J.J. Watt as players to win the award in back-to-back seasons. Donald led the NFL with 20½ sacks.

"Any time you put a body of work into it and then it pays off," Donald said, "and you're rewarded for it, it means a lot. It's a blessing."

Chicago's Matt Nagy, in his first season with the Bears, was voted Coach of the Year. Nagy has overseen the development of quarterback Mitchell Trubisky, who blossomed in his second pro season, and saw a defense befitting the "Monsters of the Midway" dominate opponents at times. He is the fifth Bears coach to win the award, joining team founder George Halas (1963, 1965), Mike Ditka (1985, 1988), Dick Jauron (2001) and Lovie Smith (2005).

“It’s crazy to think this is one person, so for me, it’s being a part of this organization and for our players,” Nagy said. “Just being able to believe in what we wanted to do with our culture and then follow through with it.”

Colts quarterback Andrew Luck was chosen the Comeback Player of the Year, following a lost 2017 season to a shoulder injury with a sensational 2018 campaign.

“I truly believe there are players on every team, every roster that could be Comeback Player of the Year in their own ways,” he said. “Honestly, the best part was playing football again — having fun playing football and being pain free.”

Giants running back Saquon Barkley was the top offensive rookie, while the defensive rookie award went to Indianapolis linebacker Darius Leonard. Described by some as a “generational running back,” Barkley rushed for 1,307 yards and 11 touchdowns behind a weak New York offensive line. He drew 26½ votes and edged Baker Mayfield. The Cleveland quarterback who was selected first overall in the draft, one spot in front of Barkley, earned 21½ votes. Barkley also made a team-high 91 receptions for 721 yards, and his 2,028 yards from scrimmage led the NFL.

For his work as defensive coordinator of the Chicago Bears, Vic Fangio got the head coaching gig in Denver. He also won The Associated Press 2018 NFL Assistant Coach of the Year Award on Saturday. Philadelphia Eagles DE Chris Long won the Walter Payton Man of the Year Award for community service.

“I don’t know, I’m very humbled,” Long said. “It’s hard to feel deserving with those guys on stage and, obviously, this guy right here on the statue. It’s a very heavy statue and it makes sense because his legacy is immense. I’m just honored.”

COME AND MAKE THE

CAREER CONNECTIONS

MARCH 6, 2019 | 1 – 3 PM
POL SINELLI KANSAS CITY



Who's Hiring in Kansas City?

You are invited to meet and explore career opportunities with hiring managers from [Cerner](#), [Burns & McDonnell](#), [Blue Cross Blue Shields of Kansas City](#), [Black & Veatch](#), [Garmin](#), [Federal Reserve Bank of KC](#), [Turner Construction Company](#), [FBI](#), [RSM US](#), [KeyBank](#), [YMCA](#), [UMB](#), and [Hallmark](#)!

RSVP is required:

<https://www.asianchamberkc.com/2019-career-networking/>

PROFESSIONAL ATTIRE. BRING RESUMES.

Questions? Email: aacckc@asianchamberkc.com





한방으로 암 치료가 가능한가요?

문 득 '사람이 자기의 생이 언제 다 할지를 안다면 남은 날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겨울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신은 인간에게 자신이 죽는 날을 모르게 만드신 것 같다. 하지만, 누구든 암 선고를 받게 되면 사람들은 내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죽음을 마주하게 된다. 과학의 발달로 암 치료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암은 고치기 힘든 공포스러운 병으로 인지된다. 암은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로 치료 및 예방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예방에 대해선 주로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찾는 것에 비해 치료에 대해선 수술 및 방사선 치료 위주의 양방치료만 있는 줄 안다. 한방이든 양방이든 혹은 협진이든 최적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치료를 환자들이 받으면 좋으려만, 한방치료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치료의 선택권을 박탈당할까 한 쪽에만 치우친 진료를 받는 현대인의 현실이 안타까워 이와 관련된 글을 쓰기로 했다. 환자들에게 한약을 권할 때에 일부 환자 중에 "저 암수술을 해서 한약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라고 대답을 한다. 참 답답한 노릇이다. 대표적으로 암이 생기는 면역학적 원인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임파구 수치가 감소되어 암세포를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비정상세포가 통제 불능의 성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암의 원인물질을 고스란히 방치하고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로 그냥 버티는 것이 암의 재발을 막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오해를 바로 잡았으면 한다.

우선 암의 원인에 대해 양방의 견해부터 살펴보자. 암의 원인은 보통 네 가지로 본다. ▲ 물리적 요인 : 방사선, 전자기파, 자외선 등 ▲ 화학적요인 : 담배연기와 같은 발암물질 ▲ 생물학적 요인 : 바

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 ▲ 기타 :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면역체계의 약화를 들 수 있다. 국제적으로

암을 고치는 한방

면 임파구가 감소하여 면역상태가 억제되고 반면 과립구는 과잉되어 정상세포가 파괴되어 암이 발생한다고 했다.

한의학적으로 암의 발생기전을 살펴보면 "血氣稽留不得行 故宿昔而成積矣"라 하여 기혈이 잘 통하지 못해 어혈이 생겨 오래되면 적(積) 즉 암(癌)이 생긴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치료 방법은 어혈을 풀어 주는 치료법과 '養正積自除'라 하여 부족한 에너지를 채워주는 치료법을 사용한다. 면역력을 길러주면 적(암)은 스스로 풀어진다는 것이다. 즉 공보겸시(攻補兼施)라 하여 공격하는 것과 보하는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여 암세포를 제거할 때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약은 암 환자의 몸 상태를 개선하고, 항암화학요법의 독성과 부작용을 완화하며, 환자의 면역력을 회복하여 삶의 질을 회복시키고 생명력을 높인다. 이는 현재에 이르러서도 많은 임상사례와 논문으로 검증되고 있다. 보약이 암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에 억제되었던 면역세포들인 대식세포, 자연살해세포 등의 성장 및 재생을 촉진시킨다. 암을 인식하게 만드는 수지상 세포(DC cell)의 기

능을 활성화시켜 암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여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생존기간 연장에도 실제적 도움이 된다는 보고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발암연구를 할 때 주로 실험용 쥐를 사용하는데, 쥐에게 암을 발병시키려면 암세포를 100만개 주입해야 한다. 그런데 임파구를 줄인 쥐, 즉 면역력을 약하게 한 쥐의 경우에는 1000개의 암세포로도 발암이 된다. 건강한 사람의 체내에서도 매일 100만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발병하지 않는 이유는 면역력이 작용하여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면역력이 좋고 나쁜 차이가 암 발병에 결정적 차이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 양방 감기약을 2주 이상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아, 감기를 치료하는 보약을 먹고 면역력이 회복되어 완쾌된 경험을 갖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한약이 감기 바이러스를 강하게 만들어 폐렴으로 악화시키기 보다는 면역력을 높여 오래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약은 주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한약을 먹으면 암이나 종양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있다.

말기암 환자들은 통증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럴 때 뜬을 떠주기도 한다. 뜬은 백혈구 수치를 늘려 면역력을 높이게 하고 통증을 완하시키기까지 한다. 암세포는 열에 약하고, 임파구가 열이 있는 환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이다. 로한클리닉의 김일형 한의사는 잇글에 근거하여 보약과 침



자치료 및 뜬치료를 병행하며 환자의 음식조절과 명상 및 운동요법을 가르쳐 전반적인 치료를 돕고자 한다. 나아가 필자의 바람은 이번 연재를 통해 암에 걸린 환자들이 전이가 심하지 않아 면역체계의 큰 손상없이 제거할 수 있는 초기암은 양방적 수술로 치료하고, 수술한 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한약 처방을 불안한 마음 없이 편안히 복용하여 잘못된 오해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최선인 치료법을 선택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항암과 한약을 같이 병행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치료율을 훨씬 높일 수 있다.

한의사 김일형Ph.D., L.Ac.

한의학전문 석사/박사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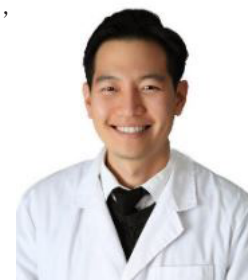
미주통합 한의전문 자격증 취득

AIMI 미주 및 글로벌 한의연구협회 임원

한국, 미국 주행한의학회/동의방약학회 회원

Lohan Chiropractic & Acupuncture Clinic

816 - 444 - 1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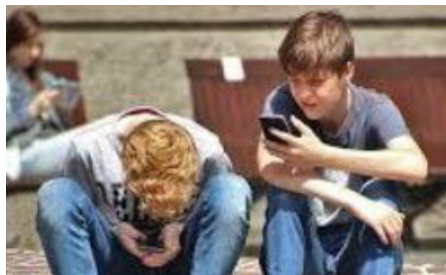




Dr. Hong 의

뼈와 근육 이야기 : 디스크

필자의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 중에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건강에 대해 상담을 하곤 하신다. 그들 중 대부분이 오랜 시간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통증이나 자세에 대해 상담을 하신다. 그 정도가 심한 경우는 자녀들을 데려와서 카이로프랙틱 교정과 운동 치료를 받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 아직은 성장기인 아이들이라 치료의 효과도 양호하고 회복이 신속해서 금세 좋은 자세를 회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벌써부터 바르지 않은 자세로 인해 구부정한 골격을 가졌다는 것에 그리 마음이 편치 않다. 바른 자세는 건강을 위해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필수한 사항이다. 그러나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바른 자세는 그만큼 더 중요하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릴 때부터 바른 자세만 유지해도 우리의 목과 허리는 그만큼 편안한 한 평생을 보낼 수 있다.



바른 자세가 아닐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일자목과 거북목에 대해 지난 달 칼럼에서 다루었는데 그때 잠깐 언급했던 디스크에 관해 다루어보기로 한다. 보통 우리가 자연스러운 자세로 서게 되면 요추(허리뼈)와 경추(목뼈)가 앞으로 휘어진 C자 곡선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두 개의 C 커브를 각각 '요추 전만' 과 '경추 전만' 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때 등과 엉덩이는 바깥으로 커브를 만드는데, 이런 S자 모양의 척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몸에 다른 부담을 주지 않는 편하고 바른 자세다. 물론 이것은 뼈와 뼈사이를 구성하는 디스크에도 가장 좋은 자세다. 다시 말해서, 좋은 자세는 목과 허리의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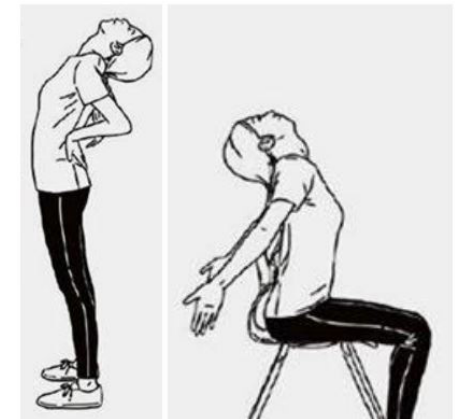
커브 두 개를 유지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쉽다. 사실상 허리의 C 커브가 무너지면 목의 C 커브도 따라서 무너진다. 실제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 가운데 목통증으로 오신 환자들 대부분 허리 통증도 호소하는 케이스가 꽤 많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해보라. 목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구부러진다. 허리를 똑바로 펴면 목도 자연스럽게 C 커브를 그린다. 물론 차이가 있다면 허리 디스크는 무게를 견디는 것이 핵심 기능인 반면, 목 디스크는 움직임을 지속하는 것이 본 기능이다.

그렇다면 목을 숙이는 자세는 왜 나쁜 것일까? 바른 자세에서 목 디스크는 머리의 무게만 감당하면 된다. 12 Lb (5kg)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는 머리 무게에 더해, 머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목 근육의 수축력이 디스크를 함께 압박한다. 그 압박은 고스란히 등 위쪽에 근육인 승모근(trapezius muscle)과 견갑거근(Levator scapular)에 주어지게 된다. 60° 정도로 숙이면 목 디스크와 어깨 쪽의 근육들이 버티는 무게가 32Lb (14kg)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20Lb를 추가로 떠받치는 셈이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오랜 시간을 보낸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일자목이나 거북목의 형태를 갖게 되고 이는 디스크에 무리를 주게 된다.

허리 디스크도 목 디스크와 그 기본 원리는 같다. 디스크란 것은 말하자면 물렁뼈인데, 척추뼈 사이에 있어서 충격을 흡수한다. 안에는 수

핵이라는 말랑말랑한 젤리가 들어 있고 겉은 섬유륜이라는 껍질이 싸고 있다. 허리나 목을 앞으로 구부린 상태로 오랜 시간을 지속한다고 생각해보자. 두 척추뼈가 부딪치면서 사이의 물렁뼈를 마치 치약 짜내듯 뒤로 밀어낼 것이다. 이때 디스크 뒤쪽 껍질이 찢어지면서 안의 젤리(수핵)가 밖으로 흘러나가 신경을 건드려 통증을 일으킨다. 이것이 디스크 탈출증이다. 우리 허리를 떠받치는 척추뼈는 구부리고 비틀고 하는 움직임 때문에 쉴 새 없이 충격이 가해지는데,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한다. 이런 디스크가 일정 이상의 압력을 받아 튀어나올 때 통증을 일으킨다. 보통 통증을 유발시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디스크 내부가 손상되어 통증을 일으키는 디스크성 요통이고, 또 하나는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자극해서 생기는 좌골신경통이다. 디스크 때문에 다리가 아프고 저리는 현상이 바로 이것이다. 디스크 안에 있는 젤리가 흘러나와서 다리로 가는 신경을 건드리면 다리가 저리는 증상 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디스크가 튀어나와 생기는 통증의 핵심은 염증이다. 젤리 안에 들어 있는 세포들은 디스크 밖으로 나오는 순간 죽게 되는데 이때 염증 물질이 나오는 것이다. 사실 염증이 없으면 웬만큼 물리적 압박이 있어도 아프지 않다. 그럼 어떻게 디스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상생활의 바른 자세다. 다르게 말해서 나쁜 자세를 피하는 거다.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고 목을 앞으로 빼고 구부리는 자세는 가장 피해야 할 나쁜 자세다.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 분들은 모니터를 눈 높이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 때 책상을 높여서 서서 일하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장기간 유지하기는 힘들다. 앉아서 일하되 자세를 자주 바꿔주면 된다. 1시간 정도에 한번씩 주위를 걸으며 몸을 스트레칭하는 것이 제일 좋다. 상황 상 돌아다닐 수 없다면 의자에 바로 기대어 앉아 목을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하면 좋다 (지난 달 칼럼 참조).

바른 자세 외에 간단하지만 또한 의도적으로 길러야 하는 좋은 습관 두 가지를 권하고 싶다. 그 중 하나는 걷기 운동이다. 근골격계 통증이



대부분 연골, 힘줄, 인대 등에서 오는데, 이것들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걷기 운동이다. 뼈와 뼈사이의 무게를 지탱해주고 힘을 받아 버티는 연골, 힘줄, 인대는 감당할 만한 힘을 규칙적으로 받을수록 더 튼튼해진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충분한 수분 흡수다. 하루의 2.5~3 liter 물을 섭취하는 것을 권한다. 우리 몸의 연골, 힘줄, 인대는 다 물의 성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많은 질병과 연관되는 혈액 순환 역시 수분 흡수와 관련이 있다. 물은 우리 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우리 몸의 순환과 회복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 몸이 갈증을 느끼는 것, 즉 수분부족현상(dehydrate)은 몸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통증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목통증과 허리통증은 일상에서 바른 자세와 스트레칭, 걷기 운동과 수분 흡수 등으로도 질병을 훨씬 더 예방할 수 있다. 물론 지속적인 통증이 심해지고 차도가 보이지 않을 때는 전문의와 상담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허리와 목통증 치료는 특별한 수술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익숙한 통증이기에 곧 괜찮아질지 하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전문의와 상담 후 치료를 받는 것이 빠른 회복을 얻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다.



Lohan Chiropractic and Acupuncture Clinic

척추 신경 전문의 홍성민

816-444-1218

건강한 식습관이 대장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 HEALTHY EATING PLAYS CRITICAL ROLE IN COLORECTAL CANCER PREVENTION

식이요법이라는 개념은 의약 그 자체만큼 오래되었다. 대장 암의 경우 식단 조절이 가장 효과적인 암 예방법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흔한 형태의 암인 대장 암은 2019년 한 해 동안 51,000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것으로 예측되었다. 원래 대장 암은 50 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생했으나 최근 밀리니언 중에서도 대장 암 환자가 급증했다. 그러나 초기에 발견한다면 대장 암은 대부분 치료 가능하고 발암 이후 5년 생존율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치료보다 더 좋은 방법은 예방이므로, 돌아오는 3월 대장 암 인식의 달은 발암 위험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대장 암은 결장 또는 직장의 내벽에 형성되는 용종의 일종인 폴립이 자라나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흔한 대부분의 용종은 양성이며 외래 수술에서 제거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용종은 암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용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단을 조절하며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나는 암 예방에 대해서는 생활 습관 변화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캔자스 보건 시스템의 통합 건강 담당 김윤항 교수는 말했다.

단 하나의 음식이나 다이어트로 암이 전부 예방된다는 마술은 없지만,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통해 섬유질, 항산화 물질, 그리고 식물성 화학 물질을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발암의 확률을 낮출 수는 있다. 브로콜리, 청경채, 양배추, 케일 등 십자화과 식물에서 발견되는 영양소가 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적으로 색이 진한 과일과 채소는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더 강한 면역력을 위해 많

은 영양 학자들은 붉은 고추, 토마토, 딸기, 황색의 오렌지, 당근, 고구마, 감귤류, 청색이나 자줏빛의 포도 열매, 가지, 자색 양배추, 그리고 흰색인 컬리플라워, 양배추, 버섯, 마늘 등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붉은 색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쇠고기, 돼지 고기, 양고기를 포함한 붉은 고기 위주의 식단은 대장 암 발병 확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반드시 붉은 고기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닭고기, 생선 또는 식물 소스에서 단백질의 대부분을 얻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붉은 살코기보다 더 나쁜 것은 가공된 고기이다. 소시지, 핫도그, 페퍼로니, 햄 및 육포 등은 소금, 훈제뿐 아니라 방부제로 뒤덮여 있을지도 모른다. 2015년 세계 보건기구(WHO)의 국제 암 연구소는 가공육 섭취가 암을 유발할 뿐 아니라 매일 50g 이상 섭취할 경우 대장 암 발병 위험을 18%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

음주는 대장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알코올은 용종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발암성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된다. 위험은 특정한 종류의 알코올이 아니라 과도한 소비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미국 암 협회는 남성과 여성을 위해 음주량을 하루에 2잔 이하로 권장하고 있다.

김 박사는 과일과 채소가 많고 붉은색 및 가공되지 않은 육류가 적은 식이요법이 대장 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이 실험적인 식이요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김 박사는 2018년 예일대 연구에서 대체요법을 선호하고 기존의 치료법을 거부한 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사실을 인용하며, 대장 암의 경우, 기존 치료법이 매우

효과적이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 암 환자들이 기존의 방사선 및 종양 전문의와 통합 의학을 접목해 합리적으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The idea of food as medicine is as old as medicine itself.

In the case of colorectal cancer, it's also among your strongest lines of defense.

The third most common form of cancer in the United States, colorectal cancer is projected to kill more than 51,000 people in 2019. While found most often in people over 50, there's been a recent spike in it among millennials. The good news is that when found early and in a localized state, colorectal cancer is often treatable and has a high five-year survival rate.

But your odds get even better if you don't have it at all. That's why March's Colorectal Cancer Awareness Month provides a golden opportunity to learn ways to reduce your risk.

Colorectal cancer begins as growths -- known as polyps -- that form in the lining of the colon or rectum. Relatively common, most polyps are benign and can be removed in outpatient surgery. But polyps sometimes turn cancerous and there's no sure way to know which ones will. That makes polyp prevention a worthy goal, and the foods you eat can make a big difference.

"I think lifestyle changes for cancer prevention are the best way," said Yoon Hang "John" Kim, MD, of Integrative Health at The University of Kansas Health System. "Right now, we don't have any evidence that there is any supplement that can prevent cancer. There just isn't."

There's also no single food or diet that's a silver bullet, but eating an array of fresh fruits and vegetables is a good place to start. They're full of fiber,

antioxidants and phytochemicals, that research shows are associated with lower cancer risk factors. Nutrients found in cruciferous vegetables, including broccoli, bok choy, cabbage and kale, have been shown to be especially helpful.

But greens should be just one of the colors on your plate. For a stronger immune system, many nutritionists recommend people eat a "rainbow" of fresh produce that includes reds (peppers, tomatoes, strawberries), yellows and oranges, (carrots, sweet potatoes, citrus) blues and purples (berries, eggplant, purple cabbage) and whites (cauliflower, mushrooms, garlic).

While red can be helpful in fruits and vegetables, it's a different story when it comes to meat. Diets heavy in red meat -- classified as any muscle meat from mammals, including beef, pork and mutton -- have been associated with a higher colorectal cancer risk. While you don't necessarily have to give up red meat entirely, getting the majority of your protein from chicken, fish or plant sources is a smart strategy.

Even worse than red meat is processed meats -- sausages, hot dogs, pepperoni, cold cuts, ham and beef jerky -- which may have been salted, smoked, cured or packed with preservatives. In 2015,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not only concluded that eating processed meat causes cancer, but that each 50 gram portion eaten daily increases the risk of colorectal cancer by 18%.

Drinking alcohol, even in moderate amounts, can also add to your risk. Not only can alcohol cause polyps, but it also breaks down in your system as carcinogenic acetaldehyde. The danger doesn't come from any specific type of alcohol, but rather heavy consumption over



time. That's why the American Cancer Society now recommends no more than two drinks per day for men and one for women.

Dr. Kim says there's plenty of evidence backing up the idea that a diet high in fruits and vegetables and one low in -- or void of -- red and processed meats can help reduce your colorectal cancer risk.

"If you eat a rainbow diet and if you eat natural food over processed food, I think the evidence is clear and is becoming more known," he said.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people diagnosed with cancer should pursue experimental dietary changes on their own. Dr. Kim cited a 2018 Yale study that found cancer patients who refused conventional treatment in favor of alternative therapies had sharply lower survival rates. With colorectal cancer, the difference was particularly stark because conventional treatment is so often effective.

"I think it's even more important that people with colorectal cancer work with an integrative oncology professional who can guide them about what is a sensible treatment and work closely with specialists like their radiation oncologist and surgical oncologist," he said. "I think that help is even more crucial with colorectal cancer."

To learn more about Integrative Health at The University of Kansas Health System, visit kansashealthsystem.com/integrative or call 913-588-6208.

캔자스 대학 보건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ansashealthsystem.com/integrative를 방문하거나 913-588-6208로 문의하길 바란다.

The University of Kansas Health System
Yoon Hang Kim, MD
4000 Cambridge St.
Sudler, Suite 2053
Kansas City, KS 66160
913-588-6208

LAOS GEOGRAPHICAL LANDSCAPE: FROM LANDLOCKED TO LANDLINKED

DR. DAVORN SISAVATH
CSU-FRESNO, ANTHROPOLOGY



THURSDAY, MARCH 28th
4-5:30p, ENGLISH ROOM
KU MEMORIAL UNION

**TRANSPACIFIC
SPEAKER SERIES,
KU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Co-Sponsored by:

**Departments of
African and African
American Studies,
American Studies,
Anthropology, the
Environmental
Studies Program, and
Women, Gender, and
Sexuality Studies**

Situated in the heart of Southeast Asia, Laos is one of five remaining communist countries. On July 23, 2018, the Xe-Pian Xe-Namnoy dam collapse in Laos caused a devastating flood the Sanamxay district. While Chinese companies were not involved in the hydropower dam project, China responded quickly to relief efforts and sent the first fully-equipped rescue medical team to Attapeu province. I suggest China's humanitarian gesture of providing aid and emergency relief was intentional, and part of its evolving relationship with Laos. This talk examines the Laos geographical landscape as mapped and made over by colonialism, US military power, and China's growing presence in Laos as a form of neo-colonialism.



KC HAPPY PLATES



KOREAN FRIED CHICKEN

한국 후라이드 치킨 (K-F-C)

Though Europe, America, and China have their own unique long histories with fried chicken, the story of modern fried chicken in Korea is way shorter one filled with innovations and entrepreneurship. Traditionally in Korea poultry was prepared in soups and stews for meals. Then in the 50s when American soldiers were first stationed during the Korean War, they introduced fried chicken to the Korean palate. During the Thanksgiving holidays, Americans would set up soul food stalls for homesick soldiers and serve fried chicken instead of unavailable turkeys and share with their Korean fellow soldiers. Then in late 1960s, with first imports of the electric oven, Myeongdong Yeongyang Center in Seoul began to sell the whole chicken roasted. They would roast the whole chicken until the skin got nice and crisp. They would package them in yellow paper bags and some families would be so excited to see the luxurious snack on their father's payday. When cheap vegetable oil became more available and chicken raising became more advanced, in 1977 the first modern-day fried-chicken franchise Lims Chicken, opened in the basement of Shinsegae Department Store. A couple years later the fast food chain, Lotteria started selling fried chicken. Eventually, the popularity of fried chicken overtook roasted chicken in the 80s, especially with the arrival of American

chain Kentucky Fried Chicken in 1984.

유럽, 미국, 중국의 프라이드치킨이 그들만의 독특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의 현대식 프라이드치킨의 역사는 짧지만 혁신과 기업가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가금류를 국이나 조림으로 즐겨 먹었으나, 한국 전쟁 중 주둔했던 미군의 영향으로 50년대부터 프라이드치킨이 한국 문화에 소개되었습니다. 추수 감사절 연휴 동안 고향을 그리워하는 미군 병사들에게 구하기 어려운 칠면조 대신 프라이드치킨을 대접하던 것이 그 유래입니다. 그 후, 1960년대 후반 전기 오븐이 처음 수입되면서 서울 명동 영양센터에서 통닭이라는 음식이 등장했는데 이전과 달리 껍질이 바삭해질 때까지 닭고기 전체를 구워 먹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월급날에만 볼 수 있던 노란 종이봉지에 싸여진 통닭은 특별한 간식이자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값싼 식물성 기름을 더 많이 공급되고 닭고기 산업이 더 발전하자, 1977년 신세계백화점 지하에 최초의 현대식 프라이드치킨 프랜차이즈 Lims Chicken이 문을 열었습니다. 2년 후 패스트푸드 체인점 롯데리아는 프라이드치킨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4년 미국의 체인인 켄터키 프라이드치킨 (Kentucky Fried Chicken) 등장하면서 프라이드치킨의 인기는 80년대에 통닭을 능가했습니다.

It was the hot new trend and everyone was trying to get the edge in the market by putting their own spin on a very simple food. Pelicana Chicken famously in 1982 noticed many customers having a hard time

biting through the hard crust of the fried chicken.

So they developed a hot and sweet sauce to soften the skin and flavor the chicken, now called "yang-yum (seasoned) chicken." Fried chicken being already seen as a snack food, adding it to the drinking culture of Korea was seamless. These "Hof" houses (Korean version beer pub) spread out all over serving Chi-Mek (chicken and beer). In the 90s, the popularity and competition reached the masses when BBQ Chicken came in on the scene and started delivering chicken.

프라이드 치킨 열풍이 불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독창적이고 인기 많은 치킨을 선보일 수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페리카나 치킨은 많은 고객들이 튀긴 닭고기의 딱딱한 껍질을 먹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튀긴 껍질을 부드럽게 하면 서도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맵고 달콤한 소스를 개발했는데, 이가 바로 지금의 "양념치킨"이 되었습니다. 이미 프라이드치킨이 간식으로 간주되던 찰나, 이는 한국의 음주 문화에 알맞는 안주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치맥(치킨과 맥주)를 주로 제공하는 호프집 (한국식 버전의 Beer Pub)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에는 BBQ 치킨이 등장해 치킨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치킨의 인기와 경쟁이 대중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In 1997, when the financial crisis in Korea hit and many people were losing their jobs. Then and now, it seemed like everyone was opening a fried chicken place. Though more chicken places closed than survive, people still open places with ideals that they require little capital and were seemingly easy to run with simple recipes.

According to the Statistics Korea and Fair Trade Commission early this year, Korea's chicken market is worth some 5 trillion won (US\$5.8 billion), and comprises 40,000 stores and 300 franchise brands. That number of stores exceeds the global total of fast food giant McDonald's or Kentucky Fried Chicken, the No. 1 chicken franchise. So despite the stiff competition and high chance of failure, they still keep opening up. And now the customers are benefiting from cheap prices and continuing innovations. Now the worldwide the popularity of K-F-C (Korean Fried Chicken) has spread even to our midwestern town.

1997년 한국의 금융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치킨집을 여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살아남기보다 폐업된 치킨집이 더 많지만, 여전히 적은 자본과 간단한 레시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치킨은 각광받는 요식업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초 통계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 치킨시장 규모는 약 5조원 규모로 4만 개의 점포와 300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매장 수는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대기업인 맥도날드나 Kentucky Fried Chicken (1위 치킨 프랜차이즈)을 능가합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과 높은 실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치킨집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더욱 저렴해지는 가격과 계속되는 혁신적인 개발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K-F-C (Korean Fried Chicken)의 전 세계적인 인기는 우리의 중서부 지역에까지 확산되었습니다.

K-F-C seemed to be a distant dream here until news of Bonchon was coming. The excitement of a Korean fried

chicken franchise, Bonchon, opening here in 2015 the KC area was big. But despite the hype, under a year, it closed down. Then Korean flavored chicken popped up in a few American modern Restaurants. Non Korean restaurants like Boru (Waldo) and Blvd Tvrn (KC Crossroads) have K-F-C wings on their appetizer menu. However, it was not until Cafe Vie added it to their menu did Kansas City have good fried chicken. Recently though, a new Korean fried chicken restaurant has opened. KoKoDAK is a brand new restaurant in Overland Park. They serve the whole chicken fried with multiple seasoning options or non fried with spicy sauce. Chosun Galbi is also recently added it to their menu. It's a great addition to their new late night hours for the weekend. Ko-KoDAK has a dense crunchy coating to hold seasoning better. They have soy, yang-yum, volcano and naked flavors for their whole chicken, wings, and boneless options. For options, they have the most. Chosun has large whole wings with thinner crust. They have few flavor options, yang-yum and soy. So after reading this article and you have a craving for KFC, you have places to go find them. Or start up your fryer and fry it at home.

한국식 치킨 요리를 미국 중서부에서 맛볼 수 있다는 꿈은 본촌(Bonchon)이 개업 소식을 알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먼 일처럼 보였습니다. 2015년, 마침내 이곳에 문을 연 한국식 프라이드치킨 프랜차이즈 본촌에 많은 한인들이 기뻐하였으나, 그마저도 1년이 채 안돼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Boru (Waldo)와 Blvd Tvrn (KC Crossroads)과 같은 몇 개의 미국 현대식 레스토랑에서 한국식 치킨을 에피타이저 메뉴로 선보였

습니다. 그러나, Cafe Vie가 한국식 치킨을 메뉴에 추가하고 나서야 비로소 맛있는 프라이드치킨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새로운 한국식 프라이드치킨 레스토랑 KoKoDAK이 Overland Park에 오픈하였습니다. 여러 양념을 선택할 수 있는 치킨과 불닭 등을 제공하며 최근 조선 갈비를 메뉴에 추가해 주말까지 심야영업을 시작했습니다. KoKoDAK 치킨은 양념에 버무려도 바삭함을 잃지 않는데다 간장, 양념, 불케이노 및 일반 프라이드치킨, 윙, 그리고 순살 치킨 등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였습니다. 한국식 치킨 요리를 선보이는 모든 식당 중 가장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한식당 조선에서 판매하고 있는 치킨 메뉴는 통 날개가 크고 껍질이 얇으며 양념과 간장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배가 출출해 지신다면 이제 찾아갈 곳이 생겨.

(<https://10mag.com/a-brief-history-of-korean-fried-chicken/>)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60527000733>) (https://en.wikipedia.org/wiki/Korean_fried_chicken)
 (<https://www.straitstimes.com/asia/east-asia/from-soup-to-fast-food-south-korea-harnesses-soft-power-of-chicken>)



Cafe Vie, Overland Park



BLVD Tavern, KC Crossroads



KoKoDAK
 14856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66223
 kodakchicken.com



Boru, Waldo



Chosun Korean BBQ
 12611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66213
 Phone number (913) 339-9644
 chosunkoreanbbqkc.com

서프라이즈 OTHER SURPRISE

세상에 놀랄 일들 때문에 요즘 자식 키우기가 더 힘든 것 같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애나에서 벌어진 일이다. 지난 24일 오후 1시경 14살 소녀가 남자 친구 문제로 엄마와 심하게 다툰 후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한 남성이 소녀에게 다가와 불편한 말을 건내더니 소녀를 칼로 위협하여 벤치에 앉힌 뒤 주먹질을 하고 목을 조르며 폭행한 것이다. 밝은 대낮에 수 많은 행인이 다니는 공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을 수 없었고 불편했고 끔찍했고 무서웠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예레미야> 5장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Jr 5:30) An appalling and horrible thing has happened in the land 내가 사는 이 시대에 놀랄 일이 참 많다. 좋은 일로 놀랐으면 좋겠지만, 생각만 해도 불편하고 끔찍한 일들이 나를 놀라게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불편한 놀라움 때문에 힘겨운가? ‘우리 집에는 그런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거야’ 라고 회피하며 살고 있는가? ‘좀더 도덕적이고 상식이 통하고 법이 살아 있는 나라로 이민가면 괜찮겠지’ 대안을 찾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 한 밤중 악몽과 같은 놀라움 속에서 다른 놀라움으로 용기를 얻기 바란다.

<요한복음> 6장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이었던 제자들, 그들의 항해는 매우 unusual했다. 밤이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내려갔고, 이미 날은 어두워졌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오지 않으셨다.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

다(요 6:16-17). 제자들은 지난 하루 종일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병자들이 회복된 장면, 빈들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저녁 식사를 했던 장면, 어떻게 가능했던 일인가? 예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다른 날보다 제자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인 힘으로 충만했다. 그들 중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의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항해 지식과 기술, 그리고 그들은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춘 12명의 팀 아닌가? 밤에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여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은 제자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문제가 생긴다 해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말이다.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강한 바람 때문에 바다는 사나워졌고 배는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했다(요 6:18). 결론부터 말하면 제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고,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와 그들의 배에 올라타신 후 모 든 것이 달라졌다. 바다는 잔잔해 졌고, 배는 곧 목적지에 다 달았다. 무슨 말인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나운 바다와 같은 세상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내 능력과 노력 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결핍과 장애, 고통, 두려움, 한계, 절망과 피곤함을 통치하시도록 맡겨 드릴 때, 사나운 삶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예수께서 가까이 오시길 사모해야 한다. 사나운 바다를 항해했던 제자들에게 언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찾아 오셨는가? 능력의 한계를 경험했던 제자들, 그들이 계속 노를 붙잡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배를 행해 찾아 오셨다. 그 시각이 새벽 3-6시쯤이었다. 악몽과 같은 항해를 견디는 모습을 예수께서 보셨다는 것이다(요 6:19). 그의 제자들이 애 쓰는 모습, 땀을 흘리고 손에 피가 나도록 노 젓는 모습, 포기하지 않는 모습

을 보시고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예수께서 보신다는 믿음,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 반드시 도우실 거라는 신뢰가 있었고, 그 중심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렸다. ‘주님, 붙잡히 여기서어 속히 이 배로 와주십시오’ ‘주님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노를 놓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 줄 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그분의 은혜가 임하길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 주실 것을 믿노라면서 내 몫의 최선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활에 찾아와 도와 주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르지 않고, 성실해야 하고,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 하듯 애를 쓰는 이유가 이것이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합시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최선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 만으로 그치면 안된다.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최선을 라 해도 수 만 마디 말을 늘어 놓는 것보다 훨씬 가치있고, 힘이 있다. 어떤 큰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매일 일을 당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생활에 담긴 중심을 아시고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이다. 아직 미숙하다고 하여 성숙한 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로 살면 그만큼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이고 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때 그때의 일을 당하는 대로 피하지 않고 최선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성숙한 내가 되는 길이다. 이것이 전도서 9장 10절 “네 손이 발견하는 것이 무

엇이든, 힘을 다해 일하라.” 의 마음 가짐이다. 사나운 바다를 밤새 항해한 제자들은 머리로만 항해 계획을 세우거나, 말로 항해하지 않았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노를 놓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다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가? 예수께서 중력 법칙을 정복하시고 물 위를 걸어오셨다! 또 다른 기적을 본 것이다.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랐지만,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 6:20)



다른 복음서는 좀더 자세히 기록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으로 번역된 헬라어로 ‘타르세이테’ 은 원래 용기란 뜻이다. 용기를 얻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가까이 계신 예수께서 나의 삶에 주인이 되시도록 나를 드리고, 예수께서 인생의 문제에 통치자로 권위를 내어 드리면, 사나운 바다와 같은 생활 속에서도 용기를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두려워 놀라게 되는 것이다.

나의 형편을 보시는 예수님 때문에 놀라고, 나의 중심의 탄식을 아시는 예수님 때문에 놀라고, 자연법칙도 이기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가까이 찾아 오시는 것에 놀라고... 그분이 사모하는 내게 말씀하시니 놀란다. 나의 생활을 보시고 중심을 아시는 주님,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으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심,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릴 수만 있다면 어떤 사나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놀라움이 있을까? 하나님 때문에 임하는 놀라움 만이 내 인생의 한밤중 악

몽과 같은 놀라움을 이기고, 계속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도 내게 주어진 빛을 깨닫고, 인생의 노

를 놓지 않고, 생명의 노를 놓지 않기 바란다.

캔사스 우리교회 담임목사 장현희
10100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66212

913.299.7246 kwoori.org  Kansaswoorichurch  podty.me/cast/178022



캔사스 시티 종교단체 주소록

캔사스 한인천주교회

담임 신부: 홍진 (베드로 주임신부)
9138 Pflumm Rd., Lenexa
913-912-2574(c)/913-563-7896
honghjin@daum.net
KCCNewMember@gmail.com

(Raymond Raewon Kim)

105 SE 421st Rd.
Warrensburg 64093
660-429-6511 / 660-864-3638 (c)
krwpreach@hanmail.net
www.cmkb.org

레반월스감리교회

담임목사: 최진호 (Jin Ho Choi)
1526 10th Ave.
Leavenworth 66048
913-682-7007/913-705-0604(c)
vic223@naver.com

베델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아브라함 (Abraham Kim)
9595 W95th St, OP
913-617-3987/913-940-9188(c)
Shalom4abraham@yahoo.com

레반월스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김한규 (Hankyu Kim)
1000 N 10th St.
Leavenworth 66048
913-682-3766
mauifullgospel@yahoo.com

캔사스뉴비전교회

Kansas New Vision Church of the Nazarene
담임목사: 박근영 (Rev. GeunYoung Park)
8200 W. 96th Street, OP 66212
816-315-4174
knvc2008@gmail.com
www.ksnvc.com
facebook.com/KansasNewVisionChurchoftheNazarene

로랜스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성환
445 Lyon St., Lawrence 66044
443-910-2732(c)
www.lawrencechurch.org

캔사스 뉴헤이븐 SDA 한인교회

Kansas New Haven Church
담임목사: 정한철 (Harold Kim)
8714 Antioch Rd, OP 66212
전화: 913-730-0190

미주리중앙침례교회

Central Missouri Baptist Church
담임목사: 김래원

facebook.com/kcsdanewhaven

캔사스선교교회

Kansas Mission Church
담임목사: Rev. Yohan Lee 이요한
김예반 (Evan Kim, 영어부)
8841 Glenwood St., OP 66212
913-648-9191/ 339-440-2696(c)
www.kansasmission.org
facebook.com/KMCCCHURCH

캔사스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1424 S. 55th St. KCK
714-313-6259
kansasfgc@gmail.com
www.kcmusa.org

캔사스안디옥나사렛교회

담임목사: 이은철 (Eun C. Lee)
2737 S. 42nd St., KCK 66106
913-831-6779 / 913-206-6631(c)
Tim0921@gmail.com
http://kansasantioch.org

캔사스시티임마누엘감리교회

담임목사: 허장 (Jang Hur)
4900 Antioch Rd., Merriam 66203
913-631-1004 / 913-206-6880(c)
hjang212hanmail.net

캔사스시티한인침례교회

Kansas City Korean Baptist Church

담임목사: Insung Jeon (전 인 성)
3817 N. Wayne Ave, KCMO 64116
816-452-1906

캔사스영락교회

담임목사: 이춘석 (Chun Suk Lee)
3000 S 55th St, KCK 66106
913-265-9030
myloveisrael@gmail.com
www.ksyoungnak.org

캔사스우리교회

담임목사: 장현희 (Hyunhee Chang)
10100 Metcalf Ave. OP 66212
913-299-7246
kwoorich@gmail.com
www.kwoori.org

캔사스 한인 중앙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김다위 (Dawe Kim)
9400 Nall Ave, OP 66207
913-649-2488/816-304-2113(c)
centralkoreanchurch@gmail.com
facebook.com/ckumc

캔사스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수철 (Soo C. Shin)
4505 Gibbs Rd., KCK 66106
913-369-5959/816-560-8619

sooshin@msn.com

캔사스제일침례교회

담임목사: 하병진 (Byung J, Ha)
15902 Midland Dr.
Shawnee 66203
913-962-9125/913-406-0586(c)
habyongjin@yahoo.com

캔사스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강일경 (Kyle Y. Kang)
2002 51st St., KCK 66106
913-236-7636/ 13-653-7077(c)/
(213) 505-7434(Director)
kpckan@gmail.com
www.kpck.org

토피카 한인침례교회

담임목사: 임성택 (Seoung T. Lim)
735 SW Oakley Ave.
Topeka 66606
785-235-8738/859-556-3555(c)
samuel3280@gmail.com

캔사스 새생명 교회

담임목사: 최안성 (Ansung Choe)
2611 S. 31th St
Kansas City, KS 66106
816-800-1985(c)/504-875-0737
choeansung@hotmail.com
kansasnewlifechurch.org

무료 광고 / CLASSIFIEDS

무료 광고란은 모든 독자들에게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터입니다. 생일, 돌잔치, 부고, 중고 물건 매매 등 모든 알리를 편하게 알려주시면 무료 한줄광고로 귀하께 실어드립니다. 편하게 애용해주시고 보내실 곳은 kim@kckoreanjournal.com 입니다.

FREE classified is a FREE marketplace for all KCKJ readers. Please send your notices for birthdays, anniversaries, obituaries, used items for sale, etc. Submit your announcements via email to kim@kckoreanjournal.com

구인,구직 / JOBS / Help Wanted

Part Time/Full Time position at Beauty Supply Store
뷰티써플라이 스토어에서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일할 분을 찾습니다. Located in Independence or Lee Summit
근무지: 미조리 인디펜던스 또는 리써밋
연락처: 913-488-8239

New Korean Asian Restaurant in Downtonwn/Crossroads hiring servers! Mila 720.366.8925

SUSHI KO LAWRENCE 에서 서버 하실분 구합니다
GOOD PAY, GOOD TIP
785-991-0081

가사도우미 구함
오버랜드 파크 남쪽, 135번가와 메카프 애브뉴 근처
일주일에 두 번 4시-7시 사이에 간단한 저녁 식사 준비 도와주실 가사도우미 구합니다.
연락처 301-395-5868

Gangnam Korean Restaurant에서 서버 하실분을 구합니다.
Full time/Part time (무/경력자 환영)
913-383-8888 ask for Chase.

Maru Sushi 에서 서버 하실분을 구합니다.
913-258-5879

의류수선 경력자 구합니다.
North Kansas City (I-29, NW 64th St)에 위치한 Alteration shop 에서 일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816-584-0845

VIVA FASHION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성실하게 오랫동안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KANSAS CITY / OLATHE / INDEPENDENCE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ALEX or JINNY 913 - 287 - 8008)

에서 맡아서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Hiring for immediate position.
Call/전화하십시오 816 - 861 - 2223
Dollar and TNS Beauty
(2928 Prospect Ave. KC, MO)

캔사스 경로대학에서 댄스, 체조, 취미활동, 건강 강의 등으로 재능을 기부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913-236-763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are an authorized METROPCS dealer in KCMO Area. We have over 20 STORES. I am currently looking for Assistant Operation Managers/ Store Managers/ Sales Rep.
Need to be able to speak English. Also, looking for anyone that would like to open a MetroPCS STORE, or purchase opened STORES. 우리는 KCMO 지역의 METROPCS 공인 대리점입니다. 우리는 20 개 이상의 점포가 있습니다. 현재 Assistant Operation Managers / 매장 관리자 / 영업 담당자를 찾고 있습니다.영어를 할 수 있어야합니다. 또한, Metro PCS 매장을 열거나 열 저장소를 구입하고자하는 사람을 찾고. Ben Kim, General Manager - Tomorrow Mobile Cell - 512.906.6106
1622 Central Ave., Kansas City, KS 66102

Janitorial Services Company. 사무직0명, 매니저0명. 영어 가능자.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일단 전화로 상담해 보세요.
Call (913)980-3043

eMaids of KANSAS CITY HAS HOME/OFFICE CLEANER POSITIONS
OPEN! eMaids of Kansas City, is looking for: honest, friendly, motivated and experienced individuals for Home/Office Cleaning. Applicants don't need to be fluent in English, but we prefer that they speak some English so that our clients can communicate with our team. We pay between \$11.00 - \$15.00 per hour (Plus Tips) after training. Plus we pay weekly. Must present valid ID / Social Security Card. Must pass a background check and have reliable transportation. Contact us by emailing eMaidsJOBSKC@gmail.com or calling 913-871-5755.

Help Wanted Star Beauty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정있으신분 찾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거나 관심 있으시면 여기로 연락주세요. (Full Time/Part-Time position available)
816-931-4747 ask for John or Josh

Polished Nails and Wax: Looking for full and part time technicians for nails, waxing, and facials: experience is a plus.
Call 913.681.6245 and ask for Stephanie

서비스 / SERVICES

Jo's Auto Body Shop
We buy used and junk cars and trucks! Mon-Sat 9am-7pm, 3333 Stadium Dr. KC, MO 64128, 816-923-0330 / 816-686-4046
jeongpanjo@gmail.com Pan Joe Jeong

Prepare & Enrich 예비부부 결혼 전 교육 (Premarital Education by English/Korean)
주제: 예비부부의 마음 준비(Mind Preparation for A Happier Marital Life)
대상: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서로의 마음을 함께 준비

하길 원하는 예비부부 (Any couple who want to be mentally well prepared for their marriage)
시간: 매주 1회 1시간씩 (기간: 최대 12주) Weekly for 12 weeks at most.
인도: 미드웨스턴 상담학과 교수 (A seminary professor of counseling)
장소: 미드웨스턴신학대학원 코엔&마이어 센터 (Kohen & Myers Center, Midwestern Seminary)
문의: 816-414-3830 (낮시간 통화/부재시 음성 메시지 녹음)

부모 써포트 그룹(Support Group)*
주제: 자녀 교육 및 양육
대상: 부모로서 자녀 교육과 양육에 관련한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자녀 연령별로 모임)
시간: 매주 1회 1시간씩 (기간: 12주)
인도: 미드웨스턴 상담학과 교수
장소: 미드웨스턴신학대학원 코엔&마이어 센터
문의: 816-414-3830 (낮시간 통화/부재시 음성 메시지 녹음)
*써포트 그룹이란 5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함께 편안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정서적인 힘이 되어주는 모임입니다.

갱년기 써포트 그룹(Support Group)*
주제: 갱년기 관련 감정 변화
대상: 갱년기 관련 감정 변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성별 따로 모임)
시간: 매주 1회 1시간씩 (기간: 12주)
인도: 미드웨스턴 상담학과 교수
장소: 미드웨스턴신학대학원 코엔&마이어 센터
문의: 816-414-3830 (낮시간 통화/부재시 음성 메시지 녹음)
*써포트 그룹이란 5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함께 편안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정서적인 힘이 되어주는 모임입니다.

업소 매매 / BUSINESS FOR SALE

RETAIL STORE FOR RENT
10413&10415 BLUE RIDGE BLVD
KC, MO 64134

MOVE IN READY!
FOR MORE INFORMATION
CALL JIN KIM 860-478-7035

Victoria's Nails and Spa
Shawnee, Kansas
Regular and very friendly clients
- 90% tip in cash
* 5 Pedicures chairs
* 6 Manicures tables
* 1 Wax room
Please contact call/text: Lily
(816)809-6120

Cafe for sale locate at Overland Park office building. Good location and business, well maintained. Owner need to retire and move please call 913 963 2889 for more information.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현재 성업중인 오버랜드 파크 오피스 건물에 위치한 카페를 개인적인 사정 (은퇴)으로 매매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Tel: 913-963-2889

Dry cleaners in metro Kansas City area. Excellent set of equipment plus profitable route with lots of growth potential. \$250,000 for everything. Excellent lease available. Call Tom at FNBC 816 799 0911

세탁공장 매매 (dry cleaning plant for sale)
Location (위치): Olathe KS
Cal or Text: (913)549-0036
가격 : \$150,000.00

휴대폰 가게 매매(Metro PCS): 캔자스 시티 지역 휴대폰 가게를 매매합니다. 여러지역에 가게 있음 (St. Joseph, Topeka, Raytown, Olathe, Merriam, Lawrence, Overland Park). 소액투자로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락 주세요연 황(Yeun Hwang): 425-496-4040.

하숙 / BOARDING

캔자스 민박 및 하숙-방5개, 화장실 3개, 거실, 페미리룸, 다이닝룸이 있으며 넓은 뒷마당이 있습니다.

연락처: 이메일 10sweetpotato24@gmail.com
하숙합니다
방 3개, 화장실 3개, 라이드 가능합니다
편의 시설: 라운드리, 인터넷, 파킹랏
I-35, 210 HWY, I-29, I-635
하이웨이 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전화번호 913-244-8362

학원 / INSTRUCTORS

캔자스시티 한국학교 Kansas City Korean Language Institute
8841 Glenwood St. Overland Park, KS 66212 캔자스 선교교회 선교관내 교장: 이명희
Principle: Myounghee Lee
이메일: leesaltkr73@gmail.com
전화번호: 816-469-8110

쿠몬 학원 Kumon Academy
대상: 3살 부터 18 세까지 Ages: 3-18
과목: 영어 및 & 수학
Subjects: English & Math
* 학생 자신이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며 자신감을 동시에 증진시켜 줌. Students learn how to study and improve learning skills at the same time enhance self-confidence.

* 세계에서 가장 큰 과외학습학원 (현재 4000개 학원에서 삼십만명의 수강생이 등록. The biggest extra-curricular learning academy in the world (30 million students are currently registered at the 4000 Academies).
* 무료 diagnostic test 및 무료 오리엔 테이션 Free Diagnostic tests and complementary orientation.
*전화 913 897-1111

New Art Class 미술 수업안내 pre-k~ 12th, 성인반 모집
다년간 입시지도 및 대학강의 경력의 박 사출신 선생님과 전문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선생님의 체계적인 미술수업 상담문의
816-646-1376/816-294-4283
artstudioianusa@gmail.com

Golf 개인교습 : 김준배 PGA 전문 골

프 코치(PGA certified instructor)- 오버랜드 파크와 샌앤드류 골프장의 수석 코치, 캔사스(Midwest PGA Section)의 유일한 PGA 인증 전문 골프코치.(개인교습문의 913-558-7997)
Golf Private Lesson: Mr.JB KIM.
*US KID TOP 50 Teacher Award/TPI Golf Mechanic LEVEL 2 Certified Teacher www.golfop.com, jbkgolf@gmail.com, 913-897-3809, 913-558-7997

NLI에서 "Study Help" 프로그램은 운영합니다. 초등/중등/고등학생들의 학교숙제를 돕고, 영어학습 (Reading, Speaking, Listening, Writing)을 도와드립니다. (문의: 913-449-2233)

NLI에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중국어, 인도어, 스페인어, 독일어, 포르투갈어(Chinese, Hindi, Spanish, German, Portuguese)를 가르칩니다. (문의: 913-449-2233)

NLI에서 교과목 과외합니다. Math, Geometry, Algebra, Calculus, Science, Chemistry, Physics, Biology
문의: 913-449-2233

사회 / COMMUNITY

한인단체장 목록 회장 안경호
캔자스 시티 한인회
Korean-American Society of G.K.C.
7800 Shawnee Mission Pkwy Mission, KS 66202

캔자스 상록회 (회장 정영로)
Korean Senior Citizen Society
6800 Alden St, Shawnee KS 66216

캔자스 한인 상공 회의소 (회장 공석)
916 Minnesota Ave. KC, KS

캔자스시티 한국학교 Kansas City Korean Language Institute
8841 Glenwood St. Overland Park, KS 66212 캔자스 선교교회 선교관내 교장: 이명희
Principle: Myounghee Lee
이메일: leesaltkr73@gmail.com
전화번호: 816-469-8110

KCKJ 알림

- * KCKJ와 함께 광고해 주세요.
- 귀한 캔자스 한인 들의 업소를 특별가로 광고해 드립니다.
- 문의 913-802-2005 , kim@kckoreanjournal.com



원고 모집
원고를 모집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kckj는 한인 여러분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담고자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여러분의 글들을 500단어 내외로 자유롭게 보내주시요.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면상 내용과 길이는 편집될수 있습니다.)
kim@kckoreanjournal.com 로 제출해주세요
Essay Submission
Do you have a talent for writing? KCKJ is accepting essays (about 500 words) from our readers. (We reserve right to edit) Please submit to kim@kckoreanjournal.com

캔자스 시티 목회자 협의회
(회장 김아브라함 목사)
2002 S 51st St. KC, KS 66106
913-653-7077
Kpckan@gmail.com

캔자스 한인 체육회 (회장 김대중)
Korean American Sports Council of Kansas

캔자스시티연합성가단 (단장 이영애)
Korean Choir of the Greater Kansas City

캔자스 한국 문화회관 건립 협회 (회장: 민상기) 913-710-9688
8409 W. 129th Ter Overland Park, KS 66213

캔자스 장로 성가단
(단장: 김영렬 장로) 913-593-7776
(총무: 배규태 장로) 816-333-128

장영준 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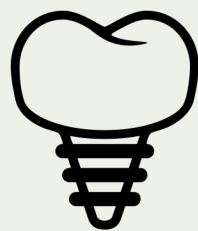
STATE AVENUE DENTAL OFFICE



캔사시티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 치과병원

YOUNGJUNE CHANG, DDS

UMKC 생물학과 석사
KU 식물학과 박사
UMKC 치과대학 치의학과 박사
DEKA CO2 Laser 과정 수료
Dentsply Implant System 수료
Hiossen (한국의 Osstem) Implant System 수료
FastBraces System 수료



임플란트!

가격도 실력도 놓치지 마세요



www.kcfastbraces.com
fastbraceskansascity.com

진료분야

임플란트
보철 치과 (크라운, 브리지, 틀니)
교정 치과 (Bracket, Invisalign)
신경 치과
소아 치과
미용 치과
치아 미백
구강암, 후두암, 갑상선암 검사
일반 치료, 발치, 잇몸치료
예방 치과

진료시간

Mon-Fri 8am-5pm
Sat-Sun Emergency Only

예약전화

T: 913-299-8554
913-299-8476
913-706-6405(응급)
F: 913-299-3187

주소

6708 State Avenue
Kansas City, KS
66102

